

#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 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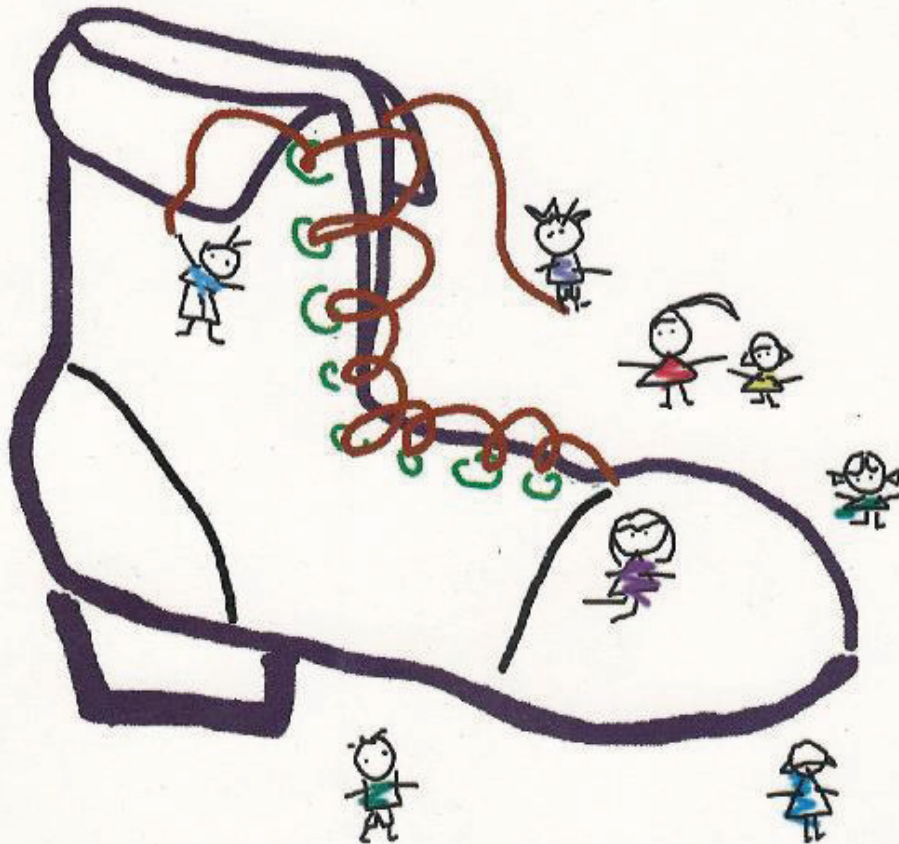
리차드 뎀브란트 지음 · 전혁애 옮김

우리가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다 더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도 아이들처럼 놀아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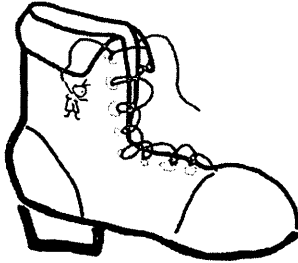
우리가 도량미아 안 어린이들의 특징은 정확히 무엇인가?



증로서적

#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 주나요

리차드 뱀브란트 지음 · 전덕애 옮김



종로서적

나를 영국의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해 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친구 로즈마리 해리스에게

## 사랑하는 나의 한국 독자들에게

여러분은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미소짓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나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쓴 모든 글의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삶의 어려움을 잊고, 어떠한 외적 역경 속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 주나요

## 차 례

사랑하는 나의 한국 독자들에게	·3
감사의 글	·7
머리말	·9
신앙	·15
물음	·34
대답	·59
기도	·78
해석	·95
오역	·117
번역	·136
반응	·152
동기	·177
해답	·200
경고	·216
설명	·231
후기	·249

## 감사의 글

이 책에 기록된 어린이들의 말은 거의 모두 '어린이들의 입술로부터' 직접 내 자신이 수집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얻기 위해 알폰스 드 리 구어리의 순교자들의 삶을 위시하여, 감옥에 갇힌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얻기 위해 소련의 지하 교회에서 몰래 발간하는 잡지들과 「매일의 양식」 「기도의 문」 그리고 몇몇 외국의 출판물 등 다양한 기독교계의 출판물들을 이용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이 이야기들 중 어떤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르게 여기저기에 인용된 적이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해서 본래의 이야기를 알아 내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말은 쓰지 않고 그들의 말 그대로 인용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 저작권 요구를 해오지 않기를! 이야기 뒤에 덧붙인 논평은 거의 다 내 자신의 것이다.

리차드 범브란트

# 머리말

오늘날 새로운 신학 이론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흑인 신학, 신은 죽었다는 신학, 여권신장 신학, 해방 신학 등 많은 신학들이.

그렇다면 왜 또 다른 신학 — ‘어린이들의 신학’ — 을 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신학보다도 어린이들의 신학을 틀림없이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실은 그것을 장려하셨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 18:3).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어떤 다른 면에서보다 신학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내 손자 알렉스가(여섯 살에 이미 성경을 꽤 잘 알고 있었는데)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경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들(Children of Israel)만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뒤에 그냥 남아 있었던 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이들(Children of God)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른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녀석은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가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사색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게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다 더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도 아이들처럼 놀아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우리가 모방해야 할 어린이들의 특징은 정확히 무엇인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철학자인데, 어린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들의 입술로부터 아주 심오한 철학적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 이상의 말을 했다. 그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 것을 권장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정신 활동임을 발견했노라고 고백했다.

아리엘이라는 네 살된 어린 터키 소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팔에 장난감을 가득 안고 돌아오실 거예요. 내겐 피아노까지 갖다 주실걸요!”





우리가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장난감을 주시겠는가?

성서에 보면, "어린이아가 그들을 인도하리라"라고 써여 있다(사 11:6). 이혼한 부모를 가진 어떤 어린이아가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왜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들을 인도하도록 말기지 않지? 우리같으면 절대로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핵전쟁 같은 것을 만들어 내지 않았을텐데. 우리가 인도자라면 때리는 일이나 이혼 같은 것은 없을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의 순진함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린이다움'을 주문해서 겉으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알고 있는, 천성적으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구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들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인 척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특별히 흥미롭다.

나는 내가 알아온 어린이들의 놀라운 통찰력에 종종 깜짝 놀라곤 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질문과 의견과 관찰과 통찰을 기록해 왔다. 내 아들 미하이와 손녀 아멜리, 손자 알렉스에게서 들은 것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접하는 어린이들의 말을 좀더 민감하게 듣고, 어린 시절의 특성인 단순한 솔직함과 관대함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바란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의 직관이 어른들이 참된 신학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나님 구두는  
누가 덮어 주나요 ?

## 신앙

● 내 아들 미하이는 여섯 살 때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생명이 위독하게 되어 두개골을 자르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뇌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뼈의 일부를 잘라 내는 아주 큰 수술이었다.

수술 전날 밤 우리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그의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를 하려고 많은 형제들을 불렀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몸을 만져 보았다. 타는 듯한 열로 그의 몸이 몹시 뜨거웠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일 네가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아주 위험한 수술이란다.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미하이가 기쁘게 대답했다. “그럼 난 천국에 가겠네요! 천사들에겐 굉장히 좋은 장난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프 연주법을 가르쳐 줄 천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다. 너는 죄인이잖아.”

“그렇지만, 아빠. 아빠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 걱정하지 않아요. 전 천국에

갈꺼니까요.”

“미하이, 여기 계신 이 형제자매님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러 오셨단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씀이 있단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낫게 되지. 너, 그 말씀을 믿니?”

형제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미하이 자신도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지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곧 아빠와 같이 새 장난감을 사러 장난감 가게에 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 손이 아직도 그의 가슴 위에 얹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동안 몸의 열이 놀랍게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짧은 기도를 끝냈을 때,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열을 재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온계로 재 봐요!”

틀림없이 미하이의 열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날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대신 그는 마당에 나가 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미하이를 장난감 가게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소련 군대가 우리의 조국 루마니아를 막 침공해 들어온 때였는데, 그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여기저기 술에 취한 소련 군인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소련인 대위가 여자 상사와 같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무슨 물건을 사러 온 모양이었는데, 그들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고 상점 주인은 소련말을 몰라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들을 도와 주

겠다고 자청했다.

미하이는 자꾸 나에게 그 소련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라고 재촉했다. 나도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돈을 마구 쓰는 일을 도와 주고 있는데, 여자 상사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수 있겠는지요? 제가 여자 옷이 한 벌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면 여자 옷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나는 그 여자가 내 손아귀에 걸려든 것을 알았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위님과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할테니, 같이 가서서 점심을 먹고 나면, 내 아내가 두 분을 모시고 그런 곳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미하이는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을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

“아빠, 술도 한 병 사세요.”

그가 놀라웠다.

“그러면 아빠 이야기를 더 잘 들을 거예요. 소련 군인들은 다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아빠도 아시잖아요?”

그 녀석은 아마 내가 성경에서 인용해 쓰는 말을 들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내가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고전 9:20, 22).

나는 기발한 제안에 미소만 지었지만, 나의 손님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나눌 수 있었다. 두 사람 다 믿는 신자가 되었다.



● 소련 연방에는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투옥된 삐요뜨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엉큼한 속셈을 가진 경찰 간부가 학교에 와서 그 소년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그 경찰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소년의 처지를 매우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단다. 그러나 그럴려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좀더 잘 알아야 한다. 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렴.”

“오!”

삐요뜨르가 소리쳤다.

“우리 아쁜 아이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아빠가 이야기를 하실 땐 마치 예수님이 방안에 계신 것 같았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것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그분을 찾아왔던 이야기길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요.”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물었다.

“어디에서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했지? 거긴 누가 있었지? 또 누가 말했지?”



그 어린이는 위험을 느꼈다.

“제가 아저씨한테 우리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 드릴 수 있어요. 그 외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저씨 우리 모임에 속한 분이 아녜요. 난 아저씨를 믿을 수 없어요.”

교회의 비밀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즉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빼요뜨르처럼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 어린 알렉스가 부모와 같이 휴가에서 돌아오자, 녀석은 “이게 우리집이야”라는 소리를 연발하며 현관문과 자기 베개와 여러 가지 물건에 입을 맞추며 돌아다녔다.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알렉스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이며 이방인이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프리카로 코끼리 사냥을 갔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배를 타고 있었다.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지만, 선교사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기 처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통령은 집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우리의 진짜 집의 현관과 문턱에 정신없이 입을 맞추며 돌아다닐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소련의 바실리 슈크라는 형제에게 그의 세 자녀들인 앤드류(열 살), 게나(열두 살), 탄야(열네 살)가 쓴 편지들을 소개한다.

사랑하는 아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아빠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깥은 춥고 황량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 모든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 한 분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진 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폭풍우 뒤에는 반드시 평온함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평온이 영원하리라는 것, 결국에는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폭풍우를 꼭 이겨내야 합니다.

집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별 희망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별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슴으로부터 키스를 보냅니다.

아빠의 아들 앤드류 올립

사랑하는 아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빠, 우리는 한시도 아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다른 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 모두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빠, 새해가 되려면 아직도 너무 멀었고, 우리 모두 아빠를 보고 싶어하니까, 감옥 소장님께 가족 면회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 좀 해보세요. 우린 아빠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게나 올립

사랑하는 아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빠가 계신 감방도 밝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찬송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아무리 눈을 꼭 감아도 자꾸 눈물이 흘러요. 우리 모두 곧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빤 혼자 계신데, 우리는 같이 있어요. 그러나 곧 모두 다 지나간 일이 될 것이고, 아빠

도 우리와 같이 있게 될거예요.

힘 내세요.

아빠의 딸 탄야 드림

우리도 이 어린이들에게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배워야겠다.



●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감리교 선교사가 어떤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 어린이는 주일학교  
에 가서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바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  
었다.

소년은 그 다음날 들판에 나가 몇 개의 들로 제단을 쌓았  
다. 그리고 그 위에 양고기 한 덩어리를 얹고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께 제물을 바칩니다. 제게는  
단 돈 2 펜스밖에 없어서 양 한 마리를 다 살 수 없었습니다.  
제게 돈이 있었다라면 양 한 마리를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러  
나 저는 이 고기 한 덩어리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  
지시여, 꼭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살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선 비록 불을 내리시진 않았지만 그 제물을 받으  
셨다. 개미들이 그 고기를 다 없앴던 것이다. 개미는 하늘에  
서 내리는 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도 옛 성인들의 본을 따라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  
져오는 이 어린이의 마음을 닦아야겠다.





최고의 고통은 죽음을 통해 아이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소련 연방에 있는 드브로보라는 마을에 슬로보다(슬로보다라는 이름은 러시아어로 '자유'라는 뜻이다)라는 이름의 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슬로보다 부인은 4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그녀의 다섯 자녀는 — 갈리아, 슈라, 콜리아, 리우사, 파브리크(막내는 다섯 살이었다) — 무신론적인 아동 수용소로 끌려가 그곳에 수용되었다.

이런 식의 헤어짐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다. 슬로보다 부인은 두번 다시 자기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고문 때문에 그녀는 마흔아홉의 나이에 감옥에서 죽었고, 아이들은 그녀의 장례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무덤 곁에 서서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처럼 의롭게 살도록 도와 주십시오. 어머니처럼 당신을 증거하다 죽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순교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공산주의 수용소에 수감되는 형벌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재교육’ 시키진 못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달게 받는 것은 어린이들의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될 것이다. 어른들이 그들에게 참된 크리스천의 모범을 보여 주기만 한다면.



●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비오리카라고 하는 크리스천 소녀가 자기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한 죄로 학교에서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 소녀는 매에 못견뎌 기절을 했고,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그녀는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가 정신이 들자, 옆에 있던 의사가 말했다.

“가엾은 애야, 드디어 눈을 떴구나. 그동안 나는 너를 이렇게 모질게 때린 너희 학교 교장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증오로 불타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구나.”

비오리카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제가 눈을 뜨기 직전에 저는 예수님을 뵈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아직도 아프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오면 예수님을 위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왕관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도움이 될거라구요.”

어린이들의 신학에 따르면, 자기들을 때리는 사람들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구주님처럼 자기들도 때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찰스 스펠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다섯 살난 어린이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참 믿음을 갖고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은 어린이도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아주 귀중한 신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스펠전이 어렸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찰스야, 너의 아버지와 나는 너를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켜 왔다. 우리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 만약 네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스펠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한 친구가 어린이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펠전은 그 친구를 그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데리고 갔다. 그 친구는 한 어린 소년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소년의 대답이었다.


그 친구가 스펠전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게나. 이 아이는 복음의 에이 비 씨도 모르고 있지 않나.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거든.”

스펠전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 “네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어떻게 알지?”

소년이 대답했다. “저는 죄인이었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옛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겐 나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줄 나쁜 마음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좋은 마음일 거예요.”



 19세기 초에 살았던 유대계 크리스천이었던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대해 품고 있었던 열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일까?’ 등의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하루종일 하늘을 쳐다보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회색 구름이 만들어 내는 의미 없는 모양들만 보았기 때문에 저녁이면 아주 슬픈 마음이 되었다. 나는 어린이들도 알 수 있는 천문학적 사실들에 대해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수백만 개의 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크고 아름다운 땅덩이들이라는 사실과 단 한분의 하나님께서 이 반짝거리는 별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한번은 꿈 속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아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그분은 유대인들처럼 작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계셨다. 그 씨앗들은 하

늘에서 떨어지면서 꽃이 피더니, 무한한 우주 속에서 점점 커져서 우리 지구처럼 반짝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별들이 되었다.

나는 이 환상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후로도 행복한 노인이 하늘의 작은 창문을 통해 별들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 한번은 마치 우리집 하녀가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던져 줄 때 하는 것처럼 그분이 쫓쫓 하고 혀를 차는 소리도 들었다.\*

어른이 된 하이네는 종교와 교회를 조롱했다. 그는 하나님을 증오하던 칼 막스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어렸을 적에 본 환상을 잊어버렸으나 죽기 직전에 다시 그 기억을 회상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도록 애써서, 그릇된 주지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린 시절에 본 그 환상이 임종시에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아멜리가 네 살 때 우리 내외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 썬 베르나디노에 있는 대학 선교회의 부속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

\* Heinrich Heine, *Works*(Lowit, Germany). Vol. I, pp. 425-56.




그 아이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그후 그 아이는 여러 번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헌신하라는 부름에 끈질기게 항거했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확신해요.”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품안으로 영접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가?



 4세기에 잔인한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안의 통치하에 줄리에타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 부인은 이방신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는 명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나의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길리기아의 총독이던 알렉산더가 줄리에타의 세 살난 아들 퀴리커스를 그녀의 품에서 빼앗고, 그녀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이의 고통 당하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아이를 붙잡아다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히고 아이의 입을 맞추려 했다. 퀴리커스는 그러한 폭군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몸을 빼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는 아이를 붙잡아 죽도록 때렸다. 아이의 피와 터져 나온 골이 땅을 적셨다. 줄리에타는 자신도 채찍질 당하면서 소리쳤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아들을 저보다 먼저 당신 앞으로 불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크리스천입니다”라는 말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라면,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을까?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그런 용기를 보여 주었다.



● 씨자리아에서 태어난 성 씨릴은 어린아이였을 적에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의 아버지는 그를 학대하고 드디어 집에서 쫓아 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이 씨릴을 불렀다. 그는 씨릴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만약 씨릴이 그 이름을 다시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만 한다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 중재를 서겠노라고 약속했다.

어린 씨릴이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테니까요.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보다 더 좋은 삶을 선물로 받을테니까요.”

아이에게 겁을 주려고 재판관은 아이를 묶어서 아이가 듣도록 처형장으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비밀 명령도 내렸다. 형리는 씨릴을 타오르는 장작불 앞으로 끌고가, 그를 불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

했다. 그러나 씨릴은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형리가 다시 아이를 재판관 앞으로 데려오자, 재판관은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너 그 불 봤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

씨릴이 대답했다. “나는 불도, 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보다 더 큰 집과 아버지의 재산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재산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선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죽여 주세요. 나는 얼른 가서 그분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주위에 둘러 서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해 주시고, 제가 이 고통을 견뎌 내고,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는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 했다.



일본 천황 타이코소마 통치하에서 광범위한 크리스천 박해운동이 전개되었을 때였다.

처형시켜야 할 크리스천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할 임무를 띤 관리들이 처음에는 어린 루이의 이름을 그 목록에 올리기를 거부했다. 바로 며칠 전에 세례를 받은 소년은 자기를 그 목록에 올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드디어 그의 소원이 성

취되었다.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끌려나가는 소년의 얼굴은 자신감에 넘치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다.

나가사키의 부총독이 형 집행을 맡고 있었다. 그는 어린 소년이 기독교를 포기하겠다고만 하면 기쁘게 소년을 석방시켜 주려 했다. 그러나 소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이 비참하고 짧은 생을 잃는 대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매달 십자가를 보자 뛰어가서 그것을 껴안았다. 십자가는 소년이 언제나 그리워하던 것이었다.



● 일세기 후 다른 왕 칸쥬게도노 치세 때 일본의 다른 지방에서 또 박해가 있었다. 또 다른 루이가 어머니와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남긴 어린 소년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어머니,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형리들이 어머니의 맞은편 십자가에 소년을 묶었을 때 소년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화가 난 형리가 들고 있던 창으로 소년을 죽였다.

우리도 이 소년처럼 고통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이가 처형을 당할 때 두 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열두 살난 토마스와 겨우 여섯 살난 피터였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먼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토마스는 자기 아버지가 순교자가 되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순교하게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막상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버지를 포옹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 아버지와 같이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형리가 토마스에게 자기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 주려 하지 않자, 아이는 소리쳤다. “나도 아버지와 같이 죽고 싶어요.” 그들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아버지의 시신 옆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그는 빛나는 얼굴로 자기 머리를 형리 앞에 내밀었다.

어린 피터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죽게 되었어요. 나는 너무 기쁘요.”

처형 장소에 이르자 소년은 얼른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계속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소년은 칼을 든 사형수를 향해 목을 길게 뽑았다.

깊은 감명을 받은 사형수는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다. “나는 이 죄없는 어린 양을 죽일 수 없소.” 두 번째 사형수도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사형수도 그렇게 했다. 아이는 네 번째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지만, 어린이들 같이 되기를  
배운 사람들은 이 어린 순교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담 기용은 신앙 때문에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17  
세기의 명사가였다. “나는 나의 지참금으로 십자가와 매질과  
핍박과 오명과 비천함과 자기 부인을 원합니다. 선하심과 지  
혜로운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선 이것들을 제게 주십니다.”



● 때때로 어린이들의 생각은 미지의 세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남자 아이들에겐 남자 천사가 있고, 여자 아이들에겐 여자 천사가 있어요?”

나의 손녀 아멜리가 물었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다. 영적인 존재들에 게도 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크고 놀라운 표징’은 무성(無性)의 존재가 아니라 여성이었다(계 12:1). 즈가리아도 그의 환상 속에서 여인들을 보았는데, 그 중 몇몇은 악마들이었다. 이사야 34장 14절에 언급된 ‘밤의 짐승’(night creature : 히브리어로 Lilith라고 함)을 유대인들의 마신학(魔神學)에서는 여성 악령의 우두머리로 믿고 있다.



● 아멜리가 제 아빠에게 물었다. “왜 아빠는 언제나 아빠 말씀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모두가 똑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다. 성서는 부모에게 절대로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십계명 중에서 축복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인,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이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들은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꼭 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사실은 아이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멜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 있게 되었어요?”

제일 좋은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주 조금밖에 모른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적든 상관없이 이 한계점을 인정해야 한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했다.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나 아실 일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신 29:29).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요 16:12).





 아이들에게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라는 것이다.

나는 아주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다. “만화경의 상(像)은 어떻게 생겼느냐?”


만화경 속의 상은 계속 바뀐다.

성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 모든 것을 사르는 불, 사자, 바위, 전사(戰士), 태고 적부터 계신 이 등 많은 것에 비유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은 모든 것 속에 계시는 모든 것이다.

만일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나도 이해할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분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해야 할 분이다. 그분은 결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 우리가 이리리라고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어떻게 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물었다.

걱정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사람도 초현미경적인 원자

와 그보다 더 작은 전자와 아주아주 작은 초분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그는 수학적으로만 시각화할 수 있는 분자에 대해 가설을 만들고,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을 고립시키는 커다란 핵실(nuclear chambers)을 만든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생명과 인간 환경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미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삶의 일부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행 17:28).

작은 소년이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려 했을 때, 엄마가 곱슬머리 아이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셨나요?”

거기 대한 답은 “그럼, 아셨지”이다.

또 어떤 아이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한테는 별들도 많고 꽃들도 많은데 왜 사람들을 만드셨나요?”

우리가 신장, 허파, 발가락이 있어도 두뇌를 가지기 원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대답이다. 사람들이 ‘모나리자’나 ‘미로의 비너스’로 만족하지 않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여자라도 살아 있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나는 나의 아들과 손자, 손녀와 같이 드라이브를 나갈 때마다 비슷한 요청을 받는다. “할아버지, 얘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멜리는 안전띠를 매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한번은 그녀에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내 말을 중단시켰다.

“할아버지, 방주 안에선 왜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백미러를 통해 아들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번갈아 가며 대답을 하려고 애썼으나 아멜리는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의 얼굴이 활짝 피어나며 논리성에 있어 반격의 여지가 없는 대답을 생각해냈다.

“아, 알았어요! 동물들이 차례로 방주에 들어올 때 노아가 안전띠를 매쳤어요. 노아는 늑대와 양을 갈라 놓았죠. 그래서 늑대는 양을 향해 이는 갈아도 물어뜯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멜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현명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기질이 아주 달라서 가까이 있으면 싸움과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갈라 놓으면 좋을 것이다.



어떤 아이가 성경의 분명한 뜻을 어렵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어떤 설교를 들었다. 드디어 그 아이가 목사님의 설교 도중 이런 질문을 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왜 뜻하신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린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 미하이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간단히 악마를 죽여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지 않으셨나요?”(그가 어른이 되어 아빠가 되었을 때, 그의 딸 아멜리가 똑 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대답했다.

“악마도 원래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도 한 때는 좋은 천사였단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쁜 천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거지. 그 악마를 죽였다면, 다른 좋은 천사가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게다. 그러니까 악마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도 악마에게 ‘죽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은 마귀들을 죽이시지 않고 도망치게 내쫓으신단다. 우리도 마귀에 대한 그런 정신적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배워서, 마귀에게 ‘아냐,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하이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내 말의 요점을 이해했고, 여덟 살난 아멜리도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또 그렇게 했다.



●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가 자기를 찾아왔던 열두 살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아이가 그 전도자에게 간청했다.

“목사님, 제발 감옥에 가서 우리 아빠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요. 우린 아빠를 굉장히 사랑했고, 아빤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아빠에게 나쁜 짓을 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전 어린 누이동생 셋을 보살펴야 해요. 제발 아빠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빠는 내일 교수형을 당할거예요.”

소년은 계속 말했다.

“감옥 당국은 아버지의 시신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국은 차라리 아버지에게 술을 판 그 술집에 아버지의 시신을 쥐야 할거예요. 정부는 왜 그 술집 주인은 교수형에 처하지 않지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목졸라 죽이기 전에 그 술집 주인이 우리 아빠의 영혼을 죽였는데도요.”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누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양조업자, 술집 주인, 음란한 책을 쓰고 출판하는 사람들, 폭력을 우상화시키는 텔레비전 제작자들이 이런 범죄를 조장한 책임을 저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심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한 사람들에게겐 벌을 내리지 않는 입법가들과 판사들은 왜 고발되지 않는가?

나는 내가 어려서 식별력이 부족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독약 같은 사상으로 나의 영혼을 병들어 죽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을 부끄럽게 기억하고 있다.



어떤 아이가 알고 싶어하는 게 하나 있었다. “하나님 께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해주 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어도 될까요? 정말 하나 님께 무엇이든 요구해도 되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요 15:7). 이 말씀은 포괄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 앞에는 ‘만약에’ 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일부가 되라. 그분의 말씀이 당신 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구한 것은 당신 것이 될 것이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틀린 것을 구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어린이들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왜 이 렇게 악이 성행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이 자라가면서도 어린이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에서 선을 보고 모든 사 람에게서 잠재적인 선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만약 어떤 아이가, “왜 악이 있어야만 하나요?”라고 묻는 다면, 우리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최대의 선을 이루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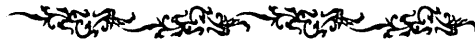


쉴로라라는 전도자가 하이티의 한 소년에게 물었다.  
“너, 예수를 아니?”

“그게 미국에서 새로 나온 음료수인가요? 난 코크박엔 몰라요.” 소년이 대답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보다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인 선전을 한 셈이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장사꾼들이 갖지 못한 이로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들의 일이지만,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다. 그분은 한번 마신 사람이 다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가진 분이다.



성탄절 연극에서 여덟 살난 소년이 요셉의 역할을 하고, 같이 여덟 살난 소녀가 마이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두 아이는 무대 위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을 꾸짖었다.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의 역을 맡고 있는지 잊어버렸단 말이야? 요셉은 마리아와



싸운 적이 없단 말이다.”

소년이 대답했다. “아빠가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는 병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사실 그는 몰랐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싸웠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성인들의 동상이나 그림은 다 어른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인들은 약할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천인 부모들과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싸우거나 어떤 죄를 짓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성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보물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흙으로 만든 단지가 아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든 단지에 담긴 보물이다. 단지의 존재를 부인하면 크리스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 미하이가 다섯 살 때 성인들은 언젠가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걷게 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님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작은 옷이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크기의 옷이 다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성 판크라스와 성 타르쉴시우스는 야수에게 삼켜져 죽었다. 그들은 겨우 아홉 살의 나이에 순교자로 죽었다.

몸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각기 맞는 옷이 다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도 다 자기에게 맞는



웃이 있는 법이다.

불독이 주머니 크기 만한 푸들을 보고 물었다. “너도 너를 개라고 생각하니?”

푸들이 대답했다. “나도 내가 너만큼 크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분명해. 작은 개도 여전히 개거든.”

약하고 겁이 많고 타락한 적이 있는 크리스천도 역시 크리스천이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흰 웃이 있다.



● 선생님이 한 반 학생들에게 말구유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을 보여 주고, 이 거룩한 가족이 매우 가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물었다. “그렇담, 이 가족 그림을 그려 준 화가에겐 어떻게 돈을 줬죠?”

이 아이의 질문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약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 가족 사진을 찍을 여유 같은 —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어떤 아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이리 말로 안심시켰다. “예수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

했다.

“엄마는 저번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땐 예수님의 피는 어디 있지요? 그땐 무얼 하고 있어요?”

찬송가의 일 절을 소개한다.

믿음으로 당신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강물을 본 후로  
날 구속하신 사랑이 내 노래의 제목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내 노래의 제목  
(윌리엄 카우퍼,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의 강물이 있다.

우리 몸 속에도 한 순간 멈추지 않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피가 흐르고 있다. 피는 셀 수도 없는 우리 몸 속의 세포에 산소와 아미노산과 질소와 그 외의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는 몸 속에 생긴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몸 속에 들어온 나쁜 균들과 싸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도 못한 채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 그러나 피가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님의 피는 그분의 몸된 교회 안을 두루두루 흐르며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고 죄를 제거해 준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피를 필요로 한다.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엄마의 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다. ‘무존재’ ‘열반’ — 이런 것들은 오직 어른들만이 매달려 씨름하는 개념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책이나 연필이나 펜도 없고, 사람의 목소리나 속삭임 하나 들려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지냈다.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만약 내가 교황이라면, 수상이라면, 유명한 작가라면, 교회의 목사라면, 백만장자라면, 거지라면 무엇을 할까?

한 번은 내가 죽은 경우를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나는 자신이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상상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울며 서 있었고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러다가 나는 곱 곱 웃었다. “자신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 일도 가능하다. 비천한 군인이 황제가 되는 꿈도 꿀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나폴레옹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거지가 백만장자도 될 수 있다. 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뒤바뀌는 운명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영원한 행복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 알렉스의 호기심은 한이 없다. 녀석이 다섯 살 때 고기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 궁금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린 어디서 고기를 구하지요?”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은 어디서 고기를 구하나요?”

“소에게서.”

알렉스가 의심쩍게 생각하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아주 우울해졌다.

“그렇담, 우리가 소들의 살을 먹기 위해 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

“왜요?”

“우리에겐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들에게 우리가 자기들을 죽이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요?”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한다. 나는 그들의 특별한 ‘소 잡이’ 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종교적 역할은 짐승들을 잡는 동

안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들에게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의 몸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몸, 즉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희생됐는가를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여섯 살짜리 알렉스가 이렇게 말했다. “원래는 가인이 착한 사람이고 아벨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죽였거든요. 양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죠. 그런데 가인은 양을 죽이지 않았어요. 양은 귀여운 살아 있는 동물이예요. 왜 하나님께선 양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양을 함부로 죽이는 것 — 더 더욱 나쁜 것은 내가 양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을 죽이게 하는 것 — 은 잘못된 일이다. 성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우리가 양을 죽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확신하는가?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양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 힘을 얻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에만 먹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식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화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식사는 다 우상을 섬기는 식사이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가 사람을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가인은 양을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동생을 죽였고, 히틀러도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다.)



 당근과 콩 속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으니 당근과 콩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가 말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탕과 아이스크림 속엔 비타민을 넣지 않으셨지요?”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기 싫어하는 것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일에서 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은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환영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도 그 ‘모든 일’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멜리는 여섯 살 때,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 19:14)라는 말씀을 토대로 한 설교를 듣고,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다 어린이들이었으니까, 틀림없이

다 천국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천국을 잃게 되었지요?”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하여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잊게 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거짓말, 도둑질, 한두 번 잘못하다가 결국 빠지게 된 특별히 나쁜 버릇 등.

우리는 천국을 가졌는데 그것을 잃었다. 성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는 전혀 낯선 어떤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한때 우리의 것이었던 것, 우리가 잃어버린 보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위성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린 이제 또 하나의 별을 하늘에 올려 놓았단다. 금방 사람이 타고 있는 인공 위성을 띄웠거든.”

소년이 물었다. “하늘에 있는 다른 별들은 누가 거기다 놓았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소년의 아버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겨우 몇 사람을 태운 인공 위성을 지구 궤도 속에 올려 놓는데 그렇게 많은 천재와 기술과 지적 명석함이 필요했다면, 하늘을 짝 메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는 데에는 훨씬 더 위대한 지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인공 위성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믿음은 산을 옮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산을 옮긴 건 언제였어요?”

아버지는 당황했다.

예수님께서선 우리가 정말로 산을 옮기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기분나는 대로 히말라야와 록키와 카파티안과 알프스를 이리저리 옮긴다면 어떤 혼돈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그러나 믿음이 옮길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의 산들이 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산을 옮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멜리가 여덟 살 때 내게 물었다. “할아버진 공산주의 감옥에 계셨죠. 그런데 어떻게 자유 세계로 오시게 됐어요?”

나는 기독교 단체들이 오천 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 나를 서방 세계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멜리는 한참 생각했다. “할아버진 십사 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서방 크리스천들이 만 달러를 모금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했나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우리의 무관심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공산주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오래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얼마나 헌금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더 깊은 곳까지 이르고 있다.

허드슨 테일러가 최초의 선교사로 중국 내륙에 갔을 때,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네 영국 사람들은 얼마 동안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일천 육백 년 동안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은 죄 속에서 돌아가셨고, 바깥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나는 어떤 아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선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다시 임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서 ‘보아라 내가 빨리 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서두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합시다”(살후 3:13).



어떤 어른이 캐나다의 몇몇 어린이들에게,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동안 그들이 그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써 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썼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교황님께서 사람들이 싫어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교황님의 심정은 어떤지요?” “교황님은 결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아이들은 솔직한 질문을 한다. 그들은 어른들처럼 빙빙 둘러대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솔직한 대답을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홀만 헌트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그림 앞에 서서 그림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색채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예

수님의 얼굴 표정에 대해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문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이 문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거절 당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떠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어린이만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했다.

“아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했나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그림의 주제이다. 그 외의 다른 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과학자가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물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주장에 대해 건설적인 의심을 품어 보아야 한다.

한 추기경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만일 모든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기경이 대답했다.

“나는 잠깐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던 것을 그리 오래 주장하지 않더군요.”



한번은 — 아마 내가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내가 일곱 살이던 아멜리에게 말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안 된다.”

“왜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그래도 그녀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왜 모든 일에 ‘왜’ 라고 물을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의 기본적인 분자들의 비결정론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우연의 법칙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그 이론 역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에는 ‘왜’ 라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거나 범주를 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같이 생각되는 일들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나로서는 이 만큼은 알지만,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히브리 어 성경은 ‘B’ (베트라고 읽는다)로 시작되는데 이 문자는 삼면을 가진 상자 비슷하게 생긴 ‘>’ 로 표기된다. 히브리 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상자의 열린 부분이 앞을 향하고 있다. 성경이 이 글자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위와 덕과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으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쪽만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려고 하는 방향이다.

아멜리가 다시 물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리라는 걸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다시 이 ‘왜’이다 — 큰 ‘왜’이다.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우리는 그것과 맞서 꾸준히 싸워야 한다. 쓸데없는 ‘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금방 방울뱀에게 물린 사람이 자기가 왜 방울뱀에게 물렸는지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즉시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무엇’과 ‘어떻게’가 ‘왜’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여러분은 어린이들의 신학이라곤 하지만 신학에 관한 책에서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다루고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신학이란 것이 본래 교리적인 선언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87개나 되는 질문을 하신다. 그분의 선언이나 주장은 이보다 훨씬 그 숫자가 적다.

그분의 최초의 선언이라고 기록된 것도 사실은 질문이다. “왜 당신들이 나를 찾았습니까?”(눅 2:49). 그분도 어려서 성전에 갔을 때 다른 모든 곳의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듣고 질문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눅 2:46 참조).

그리고 그분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어린이와 같은 점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질문을 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막 15:34).

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를 만나서도 질문을 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행 9:4).

처음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나는 자신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답도 또 두 가지 질문 뿐이었다.

첫째로 나는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했다. “셋별처럼 반짝이는 눈,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얼굴, 햇별처럼 맑고 별떨기처럼 눈부신 이분은 누구인가?”(아 6:10).

둘째로 나는 내가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을 만한 목자인가를 알아야 했다. 다시 성서는 이 질문으로 대답했다. “어떤 주인이 한 관리인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

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눅 12:42).

질문이 '누구?' 인데, 대답도 '누구?' 이다.

질문은 참된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이데거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질문은 생각의 경건함을 말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고전 13:9).



# 대답

● 미하이가 다섯 살 때, 어느 날 집에 오니 미하이가 벌을 받아야 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내가 내게 말했다. 나는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미하이를 내버려 두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미하이에게 물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 미하이가 대답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도 다시 대답했다. “예.”

내가 세 번째 그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전날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세 번째 대답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베드로의 대답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의 사려깊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건 묻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만족하셨어요.”

정말로 사랑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아직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어린 알렉스는 그의 진주 같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자주 밝게 해주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한번은 텔레비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있을 때였는데 나는 그에게 극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었다. 후에 내가 그에게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가 단순한 이해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예, 할머니가 예수님의 줄리엣이에요.”

그는 신학적인 설명 없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품고 계신 사랑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의 팔에 안겨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가 할아버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럼 나는 누가 만드셨어요?”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렇다면 요즘 하나님 솜씨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실습을 많이 하셨을테니까요. 이젠 얼굴에 주름 같은 건 만들지 않게 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 나아지신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겔 36:11).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대보다 이 세대에 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과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 — 최소한 서방 세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



린나는 여섯 살짜리 어린 소녀였다. 그녀가 갓 결혼한 신랑에게 물었다.

“아저씨 섹시를 사랑해요?”

“물론이지.” 신랑이 얼른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결혼의 유일한 근거는 사랑이다. 이혼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이 그들의 서약을 깨뜨리고 서로의 임무를 포기할 때 생기는 결과인데, 이것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의 언약을 지키고 신부가 사랑을 배신할 때 슬퍼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이다.



● “애야, 네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 나한테 얘  
기 좀 해 봐라.”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에게 말했다.

소년은, 단순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  
같이 위대한 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소년은 저스틴 말터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저스틴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사실  
을 몰랐을 것이다. 저스틴은 주후 155년에 순교당했다.



●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세요.” 알렉스가 어린  
애다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19세기 초에 뉴기니아에서 순교당한 이탈리아의 선  
교사 요한 마주코니의 말을 생각했다. “대양을 크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작은 배를 타고 석달 걸려 그것을 건넜  
다. 만약 어떤 분이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대양은

모래 한 알보다 작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단 한 분만이 크시고 또한 영원하시다.”



● 이방인 총독인 아셀레피아데스에게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좋으나, 아니면 많은 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더 좋으나?”라는 질문을 받았던 어린 크리스천 바루라스를 칭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세비우스와 존크리소스팀도 끼어 있다.

어린 바루라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면, 한 신의 힘이 다른 신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테니까 모든 신들이 다 무력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많은 신들은 다 가짜 신입니다.”

독재자가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는 심한 매질 끝에 교수형을 당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처형 장소에까지 안고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기를 기억하라고 말하며 형리에게 아이를 내주었다.



● 우리는 성 삼위론에 관해 가장 거룩한 책이 쓰여지게 된 것은 한 어린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거스틴이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해 책을 쓸 생각으로 깊은 명상에 잠겨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그는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예 책을 쓰려던 계획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간 그는 울고 있는 한 어린이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보세요. 내가 모래 속에 이렇게 큰 구멍을 파놓았는데도 여기에 바다 전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할 수 있겠어요?”

어거스틴은 그 아이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 주신 말씀으로 이해했다. 그는 거기에 힘을 얻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썼다. 우리도 바닷가의 그 어린이처럼 저 너머에 있는 것과 거기 계신 분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알 수 없다.



●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요?”

선생님이 채 대답할 사이도 없이 일곱 살난 소년이 대답했

다. “사람들이 디디고 설 발판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셨지.”

그 아이는 아주 심오한 대답을 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율법과 선지자들과 성서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신 것이 바로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 한 오순절 교회 목사님이 다섯 살짜리 알렉스에게 자기 교단의 교리를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분은 이것만이 바른 교리이고 다른 교리는 모두 이단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열심히 주장했다.

나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눈치채게 하여 목사님의 수고를 덜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알렉스에게 물었다. “알렉스야, 너 ‘이단’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알렉스는 곧장 대답했다.

“그러므로. 옳은 믿음을 가지면 행복하지만, 이단이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지요.”

구원의 길은 단순하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기 바란다.



● 여섯 살의 아멜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기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와 드리려다가 꾸중만 들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아예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닌가?

많은 설교자들이 겟세마네의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약함을 꾸짖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서의 어느 곳에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꾸짖는 말을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톨 프랭클의 여섯 살난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우린 늘 ‘좋은신’ 주님이란 말을 쓰지요?”

“네가 며칠 전에 홍역에 걸렸지. 그때 좋은신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잖니?”

그의 딸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의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빠, 먼저 내게 홍역을 보내신 것도 그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래적인 종교적인 대답이나 하나님에 대한 값싼 선전으로 아이들을 쉽게 속여 넘길 수 없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18). 이 말씀은 양편이 다 할 말이 있다는 뜻이다.

어린이들이,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물으면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에 대해 우리도 설명할 길이 없다



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들은 고통에 대한 이리저리한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실험실의 기니피그가 자기가 당하는 많은 고통을 이해하겠는가? 그것이 자기가 고등동물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우리의 고통이 어찌면 천사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주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 무식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은 전지자이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 여섯 살짜리 알렉스가 아이들에게 모래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 매일 교장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 했다. 녀석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테니 자기를 위해 교장 선생님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녀석의 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녀석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네가 죄를 지으면, 너는 뉘시에 췌이게 되는 것이야.” 그 말에 녀석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러나 약속을 하면 뉘시를 벗어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은 이보다 더 가볍게 벌을 면했다. 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



분했다. 그에겐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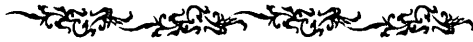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죄를 용서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이의 솔직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죄를 지으세요!”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주교회에서 “O felix culpa” — “우리에게 구주님을 주신, 오 축복받을 죄여”를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인도에 가서 선교한 유명한 선교사 E. 스탠리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았다.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죽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저 사진들에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부모를 사랑한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거니? 아픈 거니?”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굉장히 아픈 거야. 할머니는 진짜 어른인데, 할머니 얼굴에 있는 주름살 좀 봐. 그러나 진짜가 아닌 사람들만이 그걸 보기 흉하다고 생각해. 나는 할머니를 사랑해.”



● 한 여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다.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 있지?”

한 여학생이 대답했다. “우리집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날짜와 결혼과 죽음과 신문기사 오린 것과 생일 카드와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어 있어요. 그게 아마 다 일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밖엔 찾을 수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 다섯 살짜리 소년이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암송했다. “나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 주세요. 만일 내가 죽으면...”

여기서 그 소년은 멈추고 물었다. “아빠, 죽음은 어떻게 생

졌어요?”

“깜깜한 거란다.”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것 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했다. 어린아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며 어둠 속에서 잠이 깬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아빠였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죽음에 대해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주일날 아이는 굉장히 흥분해서 교회에서 돌아왔다.

“엄마! 엄마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통과하시면서 뒤에다 빛을 남겨두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복종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도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약속하신다.

‘죽음’이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대해 붙인 말이다. 예수님께서선 무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죽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법을 알고 계신다. 그분의 빈 무덤이 그것에 대한 증거이다.



방금 아침 기도를 마친 아이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무엇에 대해 기도했니?”

“하나님께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가 깬으니까 하



나눔은 편안히 주무시라고요.”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도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같은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크리스천 소녀에게 친구가 물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니?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을 사랑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분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구나.”

소녀가 대답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자꾸 자꾸 그렇게 말해 봐. 꽃들, 새들을 비롯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단다. 그분은 나를 위해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사셨고, 큰 슬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분은 나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만 반복해서 말해 봐.”

후에 그 친구 소녀가 고백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가! 그리고 짧지만 얼마나 훌륭한 설교인가!



●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최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대답했다.

그의 동기가 아주 훌륭했다.



● 어린 알렉스에게 물었다. “사랑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겠니?”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는 걸 그리지요.”

“죽음은 어떻게 그리겠니?”

“관 속엔 사람이 누워 있고, 관 위엔 빨간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걸 그리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해줘요.”

“삶은 어떻게 그리겠니?”

“사람과 해를 그리겠어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의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림들이기도 하다. 아래에 실은 그림은 아버지에게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한 네 살짜리 소녀가 그린 것이다.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이 소녀의 그림을 보면 두 몸의 중간 부분이 없다. 소녀에게 있어 몸의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했던 것이다. 아버지엔 다리가 없다. 성기를 상징하는 그림이 다리를 대신하고 있다. 소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뭉개버렸는데, 이것은 그에 대한 소녀의 분노를 나타낸다.

어떤 아이가 나의 참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J. 알렌 블레어가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해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복종의 미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려 하고 있었다.

강단 위에서 이리저리 걸고 있는 그 선생님이 풍기는 분위기가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다 — 위로 번쩍 치켜든 머리, 앞으로 쭉 내민 가슴, 사람을 압도하는 몸짓 등.

“자, 여러분!” 그는 큰 소리로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 잠시 땀을 흘리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사람들이 왜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분명 누군가가 “선생님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말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꾸밈 줄 모르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러하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이

후에 배우는 것인데 벌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종 어른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어린이의 상상일 경우도 있다.

어른들은 서로의 면전에서 이야기 할 때 훨씬 덜 솔직하다. 대신 그들은 '요령' 이라고 하는 기술을 터득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남의 등뒤에서 소근거릴 때는 위선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어린이의 솔직함을 가지고 악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때로 필요하다. 사랑에 대해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쓴 사도 요한도(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은) 디오드레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가면 그가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날날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요삼 10).

지혜자의 말을 빌리면, "입을 다물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전 3:7). 아이들의 신학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을 적용하는 법을 안다. 그러나 때로는 어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적용한다.

어떤 소년이 어머니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어쩌면 네 위가 비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네게 먹을걸 만들어 주마."

얼마 후 목사님이 그 집에 심방을 오셨다가 우연히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말했다. "목사님,



아마 목사님의 머리가 비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머리에  
무얼 좀 먹이십시오.”



●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선생님께서 아  
이들에게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오도 가도 못 하게 되  
었을 때 누구하고 같이 승강기 안에 갇히면 좋겠느냐고 물었  
다. 한 소녀가 대답했다.

“승강기 전문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갇혀 있다.’ 승강기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하기로 작정한 지구라는 행성 위에  
갇혀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 어둠 속을 빠  
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고 이생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들도 이미 너무 복잡한데 거기다가 핵  
전쟁의 위협, 인구 폭발, 오염, 날로 증가하는 부도덕성, 범  
죄, 폭력 등이 가세하니 우리는 도저히 이들을 견뎌낼 수 없  
게 되었다.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 비극에 있어 예수님이 전문가이시다. 그분의  
삶은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다. 가난하고, 억눌리  
고,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뱀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 속에 묻혔다. 그런 분이 이 세계의  
온갖 문제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그  
분의 부활의 능력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전문가를 더 귀중하게 모시자.





● 한 무신론자가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말한적이 있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나에게 보여 주면 네게 일 파운드를 주겠다.”

아이가 대답했다. “나에겐 오십 펜스짜리 하나밖에 없지만 선생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보여 준다면 이 동전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 남학생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 하던 감독님이 ‘도덕적 용기’의 실례로, “기숙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년”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년들에게 또 다른 실례를 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감독님, 감독님들로 가득찬 기숙사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한 소년이 큰 소리로 물었다.

감독들이나 다른 고위 성직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진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다윗, 욥, 예레미야 같은 성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참람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용기를 가졌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생각들을 억눌러 왔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깊숙이 박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분과 논쟁을 벌일 용기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찬송가의 일 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같은 이유로 우리의 질문이 힘든 질문일 때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 기도

● 언젠가 한 크리스천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에 생각이 골몰하여 좀 우울한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잘 시간이 되었다. 네 살도 채 되지 않는 남자 아이가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머리카락과 얼굴과 눈썹과 입술과 이빨과 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언급하며 길게 기도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우리집에 오신 손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기도를 끝냈다.

나는 나도 그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구나 내가 가진 것은 그 아이의 것들보다 더 큰 크기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도는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다른 면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

“어린아이가 그들은 인도하리라” — 심지어 기도하는 일에서도.



●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을까!”

한 소년이 물었다. “목사님, 하나님의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다섯자리 숫자란다 — 회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믿음, 사랑, 진실 그리고 외로움.”



● 기도회 도중 몇 번이나 주의를 받은 아이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자, 드디어 화가 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너, 매 좀 맞아야겠다.”

어머니 손에 끌려나가면서 소년이 방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는 굉장히 세계 때리거든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은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방으로 돌아온 소년이 성도들에게 말했다. “보셨죠?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걸!”



● 어머니가 투정부리는 아이를 침대로 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나쁜 성질을 없이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나쁜 성질을 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나쁜 성질도요.”

우리는 언제나 처한 상황의 양편 입장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 어린이가 기도했다. “제발 우리 아빠에게 더 이상 나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이 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걸 하나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번이나 더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런 각오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



● 어떤 소녀가 기도하는 소리를 엿들은 적이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착하게 굴고,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성모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 그런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은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독특함

이 혹시 그분들에겐 단순한 자기고집으로 보인 적은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열두 살 적에 부모들이 사흘이나 아이를 찾다가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자기 부모님에게 하신 말에서 아이와 부모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왜 당신들이 나를 찾았습니까?” (눅 2:49).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부모님께 복종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어머니가 특별한 호의를 요청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쩌면 예수가 어렸을 때 요셉이 때때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얘야, 제발 네 어머니 말 좀 잘 들어라.”



● 아침 기도에서 어린 도로시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도 이런 아침을 좋아할거예요.”

그 소녀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서의 시야는 더 넓다. 하나님께선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선인들 뿐 아니라 악인들 위에도 해가 빛나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든 하지 못하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 나는 어떤 농부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의 세 살짜리 딸 킬리토스는 언제나 “아빠, 엄마, 할머니, 양들, 염소들, 기니 암탉, 개들 그리고 고양이”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도 이렇게 자상하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대강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 기도해 주셨다.



● 알렉스는 겨우 다섯 살 때 이렇게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와 엄마와 저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잘 돌보세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에게 큰일이 일어날테니까요.”

그 기도는 알렉스만의 독특한 기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간이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카운터에 앉았다.

“우리 각자 조용히 기도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몇 분이 지났다. 아들의 눈이 여전히 감겨져 있었다. 드디어 소년이 머리를 들자 아버지가 물었다.

“무엇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니?”

“내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년이 아버지보다 조용한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조용한 기도란 입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조용해지는 기도를 말한다. 정신적인 기도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산란케 하는 생각들을, 심지어 시간의 경과까지도 마음 속에 들여 놓지 말아야 한다.

최초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장소의 문을 잠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도둑같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조심하여 마음의 문을 잠궈야 한다. 주님은 잠궈 놓은 문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손님을 원치 않는다.

정신적 기도란 우리의 하늘나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품안에 안겨보내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 황홀경 속에 있는 어떤 신부(新婦)가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겠는가?



한밤중에 러시아에 사는 다니엘스키 씨네 집의 문을 세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열어라. 경찰이다.”

어머니가 재빨리 속삭였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좋지? 경찰에게 빼앗길텐데.”

“빨리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테다.”

어린 소년 삐요트르가 얼른 피를 냈다. 그는 성경을 가져다 그의 누이동생의 인형 침대 위에 깔린 담요 밑에 넣었다. 그리곤 자기보다 어린 누이 나디아에게 속삭였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말고, 인형을 침대 위에 놓힌 채 계속 가지고 놀아라.”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성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러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찬송가책들과 다른 책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갔다. 경찰이 가고 난 뒤 나디아가 인형 침대 밑에서 성경을 꺼냈다. “삐요트르 오빠가 피를 낸 거예요.”

삐요트르가 대답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경찰이 우리 성경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

우리도 삐요트르처럼 우리의 성경을 귀하게 간직해야겠다.



신앙 때문에 나디아의 아버지는 소비에트 감옥에 갇혀 있었다. 어느날 소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같이 들판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를 돌아보며 소녀가 사려깊은 말을 했다. “엄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 꽃들을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빠도 돌봐 주실 거예요.” 소녀는 몇 송이 꽃을 꺾어 들고 기도

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에게 이 꽃을 갖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감옥에 갇힌 아버지에게 전해질 식품 꾸러미를 맡기려고 소녀는 어머니를 따라 경찰서에 갔다. 나디아는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에게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경찰관은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최근에 묘지에 묻고 온 자신의 딸처럼 아주 어린 소녀였다.

나디아는 손을 뻗어 자기가 꺾어온 꽃들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 꽃들을 우리 아빠에게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아저씨?”

그 고문관은 도저히 어린 소녀를 당해 낼 수 없었다. 옥에 갇힌 아버지에게 그 꽃들이 전해졌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를 들어 주신다.



 나디아의 생일이었다.

“주 예수님, 작년 생일에는 아빠가 제게 초콜릿 한 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빠는 감옥에 계세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제게 초콜릿 좀 갖다 주세요.”

러시아에서 초콜릿은 사치품이다. 그래서 그녀의 언니인 라리씨가 그녀를 꾸짖었다.

“우린 정말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사치품을 위해서 기도해선 안 되는 거야.”

나디아의 어머니도 그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 옷이 떨어졌을 때 옷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병이 나면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초콜릿은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라곤 생각되지 않는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은 나디아의 생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사건은 나디아의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교훈이 되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다. 때로 그분은 절대로 필요한 필수품이 아닌 것들에 대한 기도도 이루어 주시는 데서 기쁨을 느끼신다.



● 미하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아이보는 여자에게 그를 맡기고 외출한 적이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하이는 그녀와 같이 기도했다. 그는 우리를 빨리 집에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끝낸 후 그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문 좀 열어 주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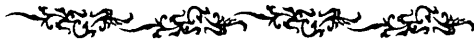
우리는 정말로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집을 나섰던 것이다.


미하이는 의기양양했다.

“난, 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엄마,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로버트야?”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 봤거든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으리란 생각이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로 작정한 후, 저녁이 되어 자신을 돌이켜 보고, 기도없이 착한 사람으로 사는데 성공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단, 정직하기 바란다.



 말썽을 피운 탓으로 일찍 잠자리로 쫓겨갔던 한 꼬마가 금방 돌아왔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꼬마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잘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다면 말이다.”

“아니요. 나는 좀 다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엄마가 나를 지금 이대로 참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아피에미’ 라는 단어는 ‘용서하다’와 ‘그대로 두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있는 구절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옵시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우리 각자는 작은 자신들(selves)의 덩어리이다. 나의 일부는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일부는 어떤 못된 죄에 빠져 있어서 그것에 계속 매달리기를 원한다.

우리 속의 한 목소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성인들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다른 한 목소리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구한다.

우리 어른들은 이 두 번째 목소리를 억누른다. 어른들이 가진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공공연하게 이 부분을 발설한다.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말할하는 것이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보다 낫다.

시편 저자가 말했다.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 아니 감추어 ‘야훼여 내 죄 아뢰옵니다’ 하였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시 32:5).



● 가족 모임에서 우리가 같이 무릎을 꿇었을 때 어린 알렉스가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가볍게 그를 꾸짖었다.

“왜 그렇게 기도했니?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니잖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알렉스는 완강하게 대답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했으니, 제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건 할머




니 책임이에요.”

녀석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축복에 대해 감사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꼭 받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킬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 대로 다 될 것이다”(막 11:22-23).



 유명한 크리스천이며 심리학자인 폴 토우르니에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위대한 일을 하는 꿈을 꾸던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장난감 구조놀이 세트를 가지고 용수철과 기어가 달린 이상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어린 누이동생에게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야망을 고백했다. 그 기계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이는 그에게 그 기계의 작동법을 물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막연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계를 통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렇다면 이 기어들은 다 뭐하는 거지?”

그의 누이가 물었다.

우리가 가진 이 많은 기어들은 다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일단 기도했으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조바심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빌리 그레함에게는 다섯 자녀들이 있다. 어느날 가족 기도 모임에서 아들 프랭클린이 성경 구절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말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친구 중 하나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다.

그때 일곱 살이던 아멜리가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난 아저씨가 천국에 가셨다고 확신해요. 아저씨는 저를 꼭 귀여워 해 주셨어요. 나는 아저씨를 위해 기도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몇 명의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수 2장 참조). 아저씨는 우리 집안에 속한 분이  
예요. 아저씨는 내 마음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신불수된 사람을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  
시고(반신불수된 사람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  
들의 친구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알렌비는 일차 세계대전 중 터키 점령하에 있던 예루  
살렘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탈환했던 영국군 총사령관  
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밤마다 기도하곤 했다. 그들  
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를 끝냈다.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당신의 택함을 받았던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습니  
다. 이스라엘이 다시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다시 당신의 특별  
하신 사랑을 받아, 자기들의 옛 땅으로 돌아갈 그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영국 소년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  
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분의 선하신 예정으로 알렌비  
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도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유명한 전도인 드와이트 L. 무디는 타미라는 어린 소  
년과 같이 술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 소년은 정말로



기도를 잘했다.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타미는 큰 술통 위에 올라 앉아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술주정뱅이들을 위해 낱알이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이 소년의 전도를 통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 한 어린 소녀가 기도했다. “주님, 모든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선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어린이들로부터 선을 유쾌함으로 감싸는 법을 배워야겠다.



● 어떤 루마니아의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이름을 꼭 써주세요. 제 이름은 라다 이오네스큐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 이름의 철자를 제가 불러드리는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소년은 한 자 한 자를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그리고 소년은 덧붙였다.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도록 제 이름과 주소와 생일도 써주세요.”

우리도 이 어린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이렇게 정확하고 조심스러운가?



● 여덟 살된 미국 소년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는 가끔 저를 무릎 위에 앉히고 차를 운전하게 해주시지만 언제나 아빠의 손을 제 손 위에 놓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제발 당신의 손을 그분의 손 위에 놓아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기도가 냉철한 통찰력으로 가득찬 경우가 종종 있다.



● 어떤 아이가 자기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죄된 일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한다. 우리는 그것이 주홍같이 붉은 죄임을 안다. 그러나 후회가 저지른 일을 없이 할 수는 없다. 회개는 용서를 얻을 수 있게 하지만, 어떻게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간음이

나 불경건이나 그 외의 죄들이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만드실 수 있다(사 1:18).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것은 오래된 최고급 포도주였다. 그분이 손님들에게 준 술은 물이었다가 갑자기 포도주로 변한 그런 술이 아니었다. 그분의 기적은 그보다는 더 심오한 것이었다. 물 대신 오랫동안 포도주였던 것을 주셨다.

히스기야 왕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 시계를 십도나 뒤로 가게 하셨다(사 38:8). 이런 일이 오후 여섯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라. 기적적으로 오후 여섯시가 오전 여덟시가 된 것이었다. 그가 자기 아내에게 거친 말을 했고 하인을 심하게 다루었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면, 다시 아침으로 돌아갔으니 마치 그 모든 일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나가 버린 날을 되돌려 주셨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제 거짓말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던 어린아이의 기도는 옳은 기도였다.



## 해석

● 성경과 사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고 자란 열 살된 소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어느날 소년의 부모가 거친 말싸움을 하고 난 뒤 소년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저를 안과 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데려다 주세요.”

“왜?”

“제 몸에 이상이 있나 봐요. 성경에서 들은 것은 들을 수 없고, 성경에서 본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은 말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육체로 나타나야 한다.



“알렉스야, 차에 타거라. 널 의사에게 데려가야겠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왜요?” 다섯 살짜리가 물었다.

“기침 때문에.”

그들은 병원에 갔다가 우리집에 들렀다. 알렉스는 명랑하고 기분이 좋았다. “의사 선생님은 기침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떤가 보러 갔었는데, 아무 탈도 없었어요.” 알렉스가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나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나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내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를 그분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분은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예수님과의 첫번째 만남에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분은 순수하고 깨끗하시다. 이 사실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그후 반 세기가 지나도록 그 기쁨은 지속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하셨다면 그분은 단 한 사람의 죄인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 끝맺는 말로 알렉스의 말을 인용하겠다. “의사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갔는데,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 있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 알렉스가 여섯 살 때 끌고다의 그림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선한 분도 죽였고, 악한 사람들도 죽였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들은 강도들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한 일은 잘한 일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강도들은 그냥 가두어 놓기만 해야 했어요.”



●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어린 불란서 소녀가 자기의 신부(神父)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성 처녀 마리아가 자기에 여러 번 나타났다는 말을 했다. 이 사건은 루르에서 일어났고, 그후 그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베르나데트가 본 환상의 객관성을 믿는다. 신교도들은 그녀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곤 했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차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귀중함을 덜지는 않는다.

한 불신자가 베르나데트에게 물었다.

“성모 마리아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던? 찡그리고 있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던? 아니면 미소를 짓고 있던?”

베르나데트가 대답했다.

“그분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떤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나에게 보여다오.”

그래서 이야기에 따르면 베르나데트는 연민과 관용과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놀라움과 그리고 희망적인 기대감이 뒤섞인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불신자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는 이제 믿겠다.”

나 자신도 감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구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어린이의 미소를 주의깊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 미소 속에 천국의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



● 열 살된 소녀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밭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에게 무어라고 설교해야 한단 말인가?

소녀는 들판으로 나가서 외쳤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머리가 굽어져 있다. 너희들도 똑바로 서야 한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서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러면 밭들은? 그들은 땅이 자기들을 물과 영양분으로 키워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다.



● 나의 아내와 나는 유대계 크리스천이다. 미하이가 다섯 살 되었을 때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인 '십해 토라' (글자 그대로의 뜻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다)를 당해 그를 회당에 데리고 갔다.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가 회당 안에 돌러지면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이 그것에 입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나선다.

그 행렬이 우리 가까이에 왔을 때 미하이가 내게 물었다.

“저도 두루마리에 입을 맞춰야 하나요?”

“네 마음에 달렸다.” 나는 가기 전에 이미 그에게 그날과 의식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랍비가 가까이 와서 미하이가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낮쳤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입을 맞추진 않겠습니다.” 아이가 말했다.

행렬은 멈추고, 놀란 사람들의 수백 개의 눈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미하이는 굉장히 긴장된 목소리로 아까의 말을 반복했다. “전, 입 맞추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내 친구이기도 한 회당장이 미하이에게 물었다. “너 아까 왜 그렇게 했느냐?”


“랍비님, 하나님께선 저희에게 어머니를 주신 건 입 맞추라고 주신 거고, 율법을 주신 건 그것을 읽고 복종하라고 주신 거지, 입 맞추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회람 정교회에서도 굉장히 호사스럽게 장정한 복음서를 돌려서 교인들에게 입을 맞추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읽는 사람



은 극히 적고, 더구나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은 더 적다.



 유대인들 사이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는 나무로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어 장에 가서 팔게 했다.

그러나 소년 아브라함은 우상을 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가 보니 할아버진 연세가 꽤 많으시군요. 육십 세나 칠십 세 쯤 되어 보이는군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어제 만드신 이 신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가져갔던 상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때리곤 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 신들의 실재를 자기 힘으로 시험해보기로 작정했다. 테라의 집에는 나무로 만든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고, 그 한 가운데에는 제일 높은 신이 모셔져 있었다. 어린 아브라함은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소위 이 ‘천상의 권력자들’에게 제사를 지낼 계획이었다.

그는 제일 높은 신 앞에 그 음식을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도끼를 들어 제일 높은 신 이외의 모든 신상들을 부수고, 도끼를 제일 높은 신의 손에 쥐어 주었다.

외출했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와 신상들이 산산조각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고, 소년이 대답했다. “제가 신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드렸더니, 신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신이 작은 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것들은 보지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 한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고 재빨리 마지막 우상을 부셔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에 대해 생각하며 돌아다녔다.

그는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게 그분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달을 찬양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자 달이 지고 해가 떠올랐다. “아하, 이게 그분임이 틀림없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해를 찬양했다.

그는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흰 모시 옷감들이 정원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후에 같은 길로 돌아오다 보니 아까의 옷감들이 이제는 흰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아무도 보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이렇게 추측했다. “틀림없이 집 안에 누군가가 있을 거다. 아마 물감들이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흰 옷감에 물을 들였겠지.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에서 어떤 분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색깔이 매일 변하는 것은 볼 수 있다.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어른이 계시는게 분명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멜리가 아홉 살 때 굉장히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

“할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것을 알 때, 무슨 말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의심을 끌걸 삼키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나는 대답했다.

“다윗이나 욥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그들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솔직하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야 해요. 아빠도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대신 충고를 하셨어야죠. 둘째,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별로 잘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우리 이웃들은 정말 불행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아멜리의 첫번째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번역한 사람들에게 있다. ‘명령’ (Commandments)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혀 명령이 아니고, 바람(desires)과 능력부여(enablings)이다. 히브리 어는 명령법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온건한 명령법’ (jussivetense)을 사용한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명령어(히브리 어로는 lo이다)로 시작하지 않고 al로 시작되는데, 이 단어는 화자의 바람을 전달한다.

그래서 바른 번역은 “제발 죽이지 마라” “제발 도둑질하지 마라” 등이 될 것이다. 혹은 좀더 원래의 의도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결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등이 된다.

아멜리의 두 번째 의견도 역시 옳다. 당신의 이웃을 오직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수님께서선 더 좋은 방법을 가르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요 13:34).

당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복종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금방 들은 설교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다.

“너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걸.”

아이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목사님 설교의 다른 한 쪽은 못들으신 모양이네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복종하세요?”

우리 모두는 여과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종종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



뉴욕에 사는 한 소년이 하나님께 이런 편지를 썼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려면 참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여쭙어 보는 건데요,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신단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뉴욕 쪽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건 언제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의 사람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들으시 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곳이 있다. 예서가 축복을 잃은 후 '너무 늦은' 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가버나움과 벳사이다에겐 너무 늦은 때이다.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길 너무 갈망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리라"(사 65:24).



한 때의 아이들이 우주선 디스커버리호가 불덩이처럼 발사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 어린 소년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별을 하나 더 띄우시는구나!"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겨우 며칠밖에 못 가는 별이란다.” 그러나 실은 모든 별들의 존재도 유한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안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별들도 생겨나서 자라다가 죽는다.

그러나 그 별들을 하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인간의 두뇌와 손을 통해 디스커버리호를 하늘 높이 띄우신다.

아이들은 이것을 깨닫고,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창 1:1)라고 시작하듯 곧장 제 1원인(the First Cause)으로 귀결 짓는다.



● 누군가가 아멜리에게 수수께끼를 물었다. 강가에 서 있는 어떤 남자에게 늑대와 양과 양배추가 있었는데, 그는 그들을 배에 실어 강 건너편으로 가져가야 한다. 단, 그의 배에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싣고 갈 수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셋을 다 강 건너편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늑대를 먼저 싣고 가면 양이 양배추를 먹어버릴 것이고, 양배추를 먼저 싣고 가면 늑대가 양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는 양을 먼저 가져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건너갈 때 그는 양배추나 늑대를 가져가야 할텐데, 어떤 것을 먼저 가져가든 둘 중 하나는 강 건너편에서 먹히고 말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중 몇 명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드디어 아멜리가 말했다.

“우리는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늑대와 양이 친구가 될 것이고, 양배추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니까요.”(롬 14:17 참조).

아멜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 전제하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른들은 좀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들(the children of God)을 위해서 다시 오시려는 이유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매우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다.



네 살짜리 미국 어린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렇게 암송했다.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것이 대표하는 공화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누구도 나눌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예수님(Jesus : 원래는 정의란 뜻의 justice임 — 옴긴이)이 있는 한 나라.



어느 날 아침 어떤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젯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꿴어요.”



106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 주나요

“네 꿈 속에서 하나님이 무얼 하고 계시던?”

“찬장 안에 갇혀 있던걸요. 저에게 꺼내 달라고 애원하고 계셨어요. 아빠, 그 꿈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내쫓으면, 그것은 마치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의 능력을 찬장 안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한다.

성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가 나를 들어오게 하면(그분은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 나는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내게 있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리라”(계 3:20 참조).



● 러시아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친 부모들에게서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다 무신론을 가르치는 기숙 학교에 넣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주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 '기도회 놀이'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형의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인형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선생님에게 가서 말했다.

“선생님, 제게 다른 인형을 주실 수 없어요? 이 인형은 너무 바보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니?”

“누구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은 바보임에 틀림없으니까요.”

그 아이의 말은 공산주의자인 선생에게 믿음의 간증이였다.



 열여섯 살된 아라비아인 아버지가 갓난 딸을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 고아원에 데리고 갔다. 열네 살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가족이 키웠겠지만, 그들에게 딸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어린 아버지는 딸 무나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방문을 고대하며, “바바(아빠란 뜻), 와”라고 중얼거리며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아버지가 올 때마다 아이는 그에게 매달려서 가지 말든지, 아니면 자기를 데리고 가 달라고 애원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더 이상 딸을 찾아가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의 새 아내는 아이를 원치 않았고, 그는 아이가 우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나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바, 와”를 되풀이하며 문간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아이에게 음식을 먹게 할 수 없었다. 드디어 억지로 먹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바바, 와” 소리를 고집했다. 한 선교사가 아이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 했으나,

아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한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버린 아빠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아빠를 새로 가질 필요는 없었다.

다행히도 그 선교사는 아이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혀 다른 아버지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무나는 다시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이미 많은 인간들에게서 버림받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또 쓰라린 경험을 하려고 마음문을 열 것인가?

그러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은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러 달려 나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훌륭한 옷을 내주시고,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이냐?”(사 5:1-4 참조).



미하이가 네 살 적인가 다섯 살 적에 내게 물었다.

“예수님께선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나는 그에게 다시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것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것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그런 건 다 알아요. 전 다른 게 알고 싶단 말예요. 난 아빠가 전도서에 있는 ‘무엇이든지 고양이에게서 난 것은 쥐를 먹으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을 거 아니예요?”

이러한 직관이 수세기에 걸쳐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게 해주었다.



‘공산세계를 위한 기독교 선교회’라는 우리 선교회는 리 투아니아에 있는 한 크리스천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소포를 하나 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간 그 크리스천에게서 선교회로 감사의 편지가 왔다. 그는 아주 심한 상처를 입어 복역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우라늄 광산에 끌려 가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큰 바위에 맞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평생 곱추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나는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구가 된 나를 그녀가 받아줄 것인가?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줄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은 느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내 뒤에서 “팝추! 팝추!” 하면서 나를 놀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린 소년이 나를 길거리에서 세우더니,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등에 지고 가는 게 뭐예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놀림을 당하겠구나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이란다.”

그 아이는 사랑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난 그걸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혹 따윈 주지 않으세요. 아저씨 등에 있는 건 천사의 날개가 들어 있는 상자예요. 아저씨가 그걸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사랑스런 마음으로 지고 다니면, 그 상자가 열리고 날개가 펼쳐서, 아저씨는 그 날개로 아름다운 하늘나라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울고 있습니다.

이 소련 아이는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다. 성서에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아이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 줄 수 있었다.

우리도 같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픈 아이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난 아파요. 하지만 거의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들의 고통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는답니다”(I suffer, but I suffer little, because Jesus said, “Suffer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실제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막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Suffer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이다 — 옮긴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쉽표 하나가 굉장한 의미의 차이를 가져왔다. 최초의 회랍어 성경 사본에는 구두점이 하나도 없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모님은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조부님은 그렇지 않았다. 가족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 어린 로널드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다. “할아버님은 언제나 모든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에 성경을 한 절씩 암송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꼭 하나를 외워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대통령은 네 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기억하기 쉬운 구절을 하나 찾아 주었다. “예수께서

우셨다”(요 11:35). 이제 로널드는 자신이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둘러 앉은 열 명의 아이들을 보고, 할아버지는 첫번째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외워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우셨다.” 그 아이가 얼른 대답했다.

로널드는 절망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답을 찾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뿐이 아니었다. 두 명의 다른 아이들이 같은 구절을 암송하자, 할아버지는 기분이 상해서 무서운 눈으로 그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로널드는 의자 속에 몸을 감추었다.

그러나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로널드에게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예수께서 우신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웃었다. 할아버지는 그를 꾸짖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다.”

로널드는 변명했다. “그런 구절이 씌여 있지 않을진 몰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할아버지는 조금도 물려서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때는 친구의 무덤에 가 계셨기 때문에 우셨다. 그러나 땀 땀에 그분이 지금 우시겠느냐?”

“그분은 지금 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분이 오래 전에 우셨다는 것밖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로서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었다. 성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음하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겔 6:9). 우리 주님은 또한 걱정하신다(말 2:17).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런 삶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요 14:9 참조).

예수님은 서른 살에 쉰 살먹은 사람같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요 8:57). 그분의 얼굴이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살하려는가?”(요 8:22). 이러한 질문은 명랑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을 만한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찾고, 찬송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 어린이들의 신학의 일부이기도 하다(슌 3:17).



● 네 살짜리 어린이가 미국 백화점에 갔다가 비스킷을 몇 개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미합중국 지도 모양으로 생긴 비스킷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이걸 보니 무엇이 생각나니?”

아이는 함박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날씨요.” 그 비스킷은 아이에게 저녁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보는 인공 위성에서 보내는 미국의 모양을 생각나게 했던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진짜 예수, 완전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가, 아니면 그 이름과 연관된 어떤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는가?



● 전쟁 동안에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나에게서 양복이 딱 한 벌 있었는데, 그것도 때가 되니 낡아 너털거리게 되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새 양복을 하나 샀다.



어느 날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 내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눅 3:11).

그때 네 살이던 미하이가 내 말을 중단시켰다. “아빠는 지금 양복이 두 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을 누더기 양복을 입고 있는 X형제에게 주셔야 해요.”

“그분에게 어느 것을 주라?”

“물론 새 것을 주셔야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따랐고, 언제나 관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늘 헐벗지 않게 해주셨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교회를 처음 방문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햇빛이 통과해 들어오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분들은 성인들이시란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소녀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 성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나는 비록 예쁘지 않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게 하는 소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인들의 슬픈 전기나 그들의 생애에 있었던 어두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이 어린 소녀의 지각이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고, 그녀의 성인에 대한 정의가 진실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우리집의 가정 기도회 시간에 우리는 '마리아의 송가'라고 알려진 성모 마리아의 노래를 읽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때 다섯 살이던 아멜리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게 기도가 아니었나요?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어린애다운 생각으로 성경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읽었고, 그것을 읽고 난 후엔 다시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 18:3).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주일학교 헌금으로 일 파운드짜리 동전과 십 펜스짜리 동전을 주었다.

“어느 것이든 원하는 것을 헌금통에 넣어라. 내가 결정해서 하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렀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이 충고하신 대로 십 펜스짜리를 넣었어요.”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던?”

“그럼요.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십 펜스짜리를 내면서 기뻐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우리는 모두 기쁘게 바칠 수 있는 만큼 바쳐야 하지만, 또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바치는 것도 배워야 한다.



우리집에선 아이들이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기 전에 손자, 손녀가 저희 아버지에게서 헌금을 받는다.

다섯 살짜리 알렉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돈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 성경을 보내요. 아빠가 성경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선 성경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실은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성경의 내용을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손녀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알레르기’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그것은 어떤 음식이나 약을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대답했다.

“아,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돈에 대해 알레르기가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즘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투자와 재산에 대한 생각에 팔려 있다.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목사님조차 자기 손녀의 자기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사실이면 참 좋겠지만 실은 백 퍼센트 사실은 아니라고 고백했다.





아멜리도 많은 다른 아이들처럼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항상 후식(dessert)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먼저 수프와 샐러드와 할머니가 만들어 주는 다른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성경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놀라서 물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식을 더 좋아하신다고 쓰여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 보세요.”

그녀가 내게 보여준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막(desert)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사십 년 간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사막(desert)을 후식(dessert)으로 잘못 읽었던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영어에는 발음이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 다섯 살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죄예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low) 있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아이는 "보라(lo)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잘못 읽었던 것이다.

우리는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곳을 찾을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in lowliness of mind)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빌 2:3).



● 한편 아멜리는 예수님께서 비행기 타신(flight)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집트로 피난' (Jesus' flight to Egypt)이라는 소제목과 예수님께서 '광야에 서 계셨다' (stood in the plain)라고 쓰인 누가복음 6장17절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비행기(plane)였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묘한 영어 철자의 차이가 아직 그 아이에게는 분명치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다른 침례교 신자와는 달리 십자가를 긋는 의식을 고집하는 한 러시아 침례교인이 생각났다. 그는 "성경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써 있다"라는 말로 자기 입장을 변호했다.



러시아어로 krestitsia라는 단어는 '세례받다'와 '십자가를 굿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받아들인 것이다.



●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을 그려보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한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다. 네 사람의 머리가 비행기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예수님, 성모 마리아, 요셉을 그렸구나.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니?”

“아, 그것은 비행사인 폰티어스예요(Pontius, the pilot)!”  
(‘본디오 빌라도’를 영어로는 ‘Pontius Pilate’라 표기하고 발음은 ‘폰티어스 파일러트’로 발음한다 — 옮긴이)

아이들의 입에서 주기도문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왔다. 한 아이는 이렇게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해롤드가 될 것이니”(Harold be Thy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hallowed be Thy name’이다 — 옮긴이).

어떤 아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젤리 빵을 주옵소서”(Give us this day our jelly bread)라고 기도했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이다).


그러나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이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라고 외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다(눅 10:26).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판에 십계명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그걸 썼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빠가 물었다.

“어제 아빠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on God's right hand) 앉아 계시다고 읽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지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추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추측이기도 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엄한 쪽에서 나오는데, 성경에는 엄한 쪽을 왼쪽이라고 하고, 은혜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오른편에 있다(마 25:33 참조).



 어떤 아이들은 신학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이 접하게 되는 선과 악의 영향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반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세상이 등글다고 생각해요?”

아이작이 대답했다.

“아뇨, 선생님.”

“그럼 납작해요?”

“아뇨, 선생님.”

“등글지도 않고 납작하지도 않다면, 그럼 무슨 모양이예요?” 선생님이 다그쳤다.

아이작은 선생님에게 지지 않았다. “우리 아빠가 굽었다고 (crooked) 그러셨어요”(이 아버지는 crooked를 세상이 비뚤어졌다는 뜻으로 썼을 것이다 — 옮김이).



● 선생님이 다른 아이에게 물었다. “넌 어디 사니?”  
“지옥에요.” 아이에게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시니?”

“악마요.”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 “넌 어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우리 엄마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과 인류와 교회와 성직자들과 통치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신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성직자들이나 다른 어른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미국 가정의 한 아이가 두 살적부터 독일인들(Germans)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듣고 자랐다.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절만'(독일인이란 뜻 — 옮긴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조심해라. 접시엔 점스(germs : 병원균이란 뜻 — 옮긴이)가 있다.”

이제야 아이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아빠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아빠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빠, 내 접시 위에 독일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심을 갖도록 조장하면,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겨우 음절 하나 정도의 관련 밖엔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섯 살 적에 아멜리는 죄인들에 대해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관대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도 낙원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단지 슬픈 마음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지옥의 존재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지옥이란 어떤 장소이냐, 아니면 단순히 회복이나 재생의 희망이 전혀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끔찍한 마음의 상태이냐?

성 존 크리소스팀이 이 둘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지옥을 싫어한다.”



 일곱 살난 아멜리가 어느날 나에게 와서 자기 개에게 세례를 주라고 부탁했다.

“얘야, 사람들만 세례를 받지, 개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

“왜요?”

“개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멜리는 기뻐 날뛰었다. “내 개에게 죄가 없다면, 나와 같이 부활하겠네요.”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왕국이 양과 늑대들의 것이기도 하며, 이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니리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



● 아이들의 질문은 때론 심오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어리석기도 하다. 어느 날 아멜리가 비난조로 나에게 물었다. “왜 할아버진 창문에게 (windows) 절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적혀 있던?”

그녀는 재빨리 “과부들을(widows) 공경하라”라는 구절을 보여 주었다. 제한된 어휘와 경험 때문에 — 그녀는 과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 그녀는 식자공(植字工)이 실수로 철자 하나를 빼먹었을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철자를 보충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한 명령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는가?

유대 신학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미츠바(mitzvah)라 하고, 인간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초크(chok)라 하여 이 둘을 구별하고 있다.



●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가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마굿간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일곱 살된 존이 대답했다. “그땐 의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아주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셨을 수도 있지 않겠니?”라고 어머니가 되물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 있어서, 거기선 어떤 일도 주선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존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服中)에 계셨을 때 어떤 고귀한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옷장에 가두어 놓고, 왜 그분이 자기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여긴다.



● 여덟 살짜리 아멜리가 어느날 나에게 고백했다. “난 우리반에 있는 어떤 남자 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애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애가 뭐라고 그러던?”

“그 앤 나 같은 애는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랬다면 넌 사랑으로 보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겠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뺨을 때렸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머리를 때렸을 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 애와 똑같은 행

등을 했으니까 그 앤 절대로 나를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형식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들도 역시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특정한 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우주적인 사랑의 의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섯 살난 소년이 생전 처음으로 해골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뼈들이란다.”

그 아이는 어린애다운 발상으로 이렇게 응답했다. “아, 그러면 천당에 가는 건 살 뿐이군요.”

이런 경우의 아이의 신학은 잘못된 것이었다. 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다”(마 7:14).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나아 가려면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려야 한다.



침례교 가정의 미국 아이가 여섯 살이란 어린 나이에, 특별히 추운 어느 날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날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로 끝나는 ‘거룩 거룩 거룩’ 이란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성사위 일체 우리 주로다’ 라고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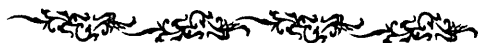


그래서 가족들이 그 아이를 꾸짖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세례받을 때 네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나를 물 속에 밀어 넣으면서, ‘성부…브루루…성자…브루루…성신…브루루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큰 소리를 내어 떨었던 모양이나, 아이는 찬물을 느끼기엔 너무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기 때문에 ‘브루루’가 삼위 중 네 번째 분이라고 짐작했던 모양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선, 세례당(洗禮堂)이 없는 지하 교회의 신자들이 겨울에 세례를 받게 되면 얼음을 뚫고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약간의 불편 정도는 무시해야 한다.



● 가정예배 시간에 어떤 아이가 우리가 흠으로 만들어졌으며, 죽으면 흠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후 그 아이가 말했다. “내 침대 밑에는 지금 태어나거나, 아니면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니? 깜짝 놀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물었다.

“내 침대 밑에 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또 다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 넣자 (breathed His spirit into Adam), 산 사람이 되었

다는 말을 들었다. 그 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죽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는 생각을 바  
꾸려 하지 않았다. “누구든 영을 주어 버린(gives up his  
spirit)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설명이었다.



● 다섯 살 적에 미하이가 나에게 살구나무가 어디서 오  
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땅에 구  
덩이를 파고, 그 속에 살구씨를 넣고, 흙으로 덮은 다음, 물을  
주면, 때가 되면 살구나무가 자라 나온단다.”

그는 흥분해서 자기 동생을 부른 다음 둘이서 내가 가르쳐  
준대로 했다. 땅에 묻은 보물에게 물을 준 다음, 그들은 나무  
가 생겨나기 시작했나 알아보려고 즉시 땅을 폈다. 당연히 그  
들은 굉장히 실망했다.

이 점에 대해선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  
한다. 우리는 성급하게 결과를 보고 싶어한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하시지 않고 몇세 동안에 창조하셨다.



● 내가 미하이에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  
서 어떻게 전쟁을 명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읽어 주  
자, 미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있



있던 일일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분별없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아이들도 때로는 속이는 법을 기막히게 잘 아는 것 같다. 슬로바키아의 한 수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준 적이 있다. 그녀는 성 니콜라스 데이에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스탕코라는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했기 때문에 손이라는 아이에게 사탕이 가득 든 양말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다.

스탕코가 나서서 학교에 왔을 때, 수녀님은 아이에게 선물을 잘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는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아이를 불러다가 맞대면 시키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한테 주었어.” 손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 스탕코가 항의했다.

그러나 손은 다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반복했다. “나는 사탕을 ‘너’한테 주었어. 너는 나를 부를 때 ‘너’라고 부르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심부름을 잘한 셈이지.”

나는 한 번 어떤 미국 목사님에게 그가 돈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다루지 않는 데 대해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변명했다. “당신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모든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



다. 그러니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한 몸에 속했습니다. 내가 부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돈은 같은 몸에 속한 한 형제의 것이었고, 내가 그것을 내 이름으로 예금한 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몸에 속한 재산입니다. 비록 사람은 달라졌지만요.”

어린이들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것은 약간 귀여운 데가 있지만, 어른들이 그러면 그것은 사기죄이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 어린아이들과 같아지려 할 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닦더라도 어린애같이 유치한 어리석음은 피하도록 하자.



어린이들의 신학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어린이들이 속기 쉽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못된 꾀에 잘 넘어간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암시 감응성(暗示 感應性)은 무한한데, 어린이들에게 있어 가장 심하다.

두 어린 소년이 이카루스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옛날 어떤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감옥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양초로 몸에 깃을 붙이고 날아 올랐대. 그러나 너무 태양 가까이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초가 녹는 바

람에 깃이 떨어져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단다.”

“그게 사실이니?”

“물론 사실이지. 내 역사책에 그렇게 써있던걸.”

또 어떤 소년은 정교회 교인이었다. 그는 성 게오르그가 정말로 용을 죽였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성인의 승리를 나타낸 성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서 온갖 교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며 진리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우화를 좇아서는 안 된다(딤펴전 4 참조). 더구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에게 재미있는 말을 해주소’ (사 30:10)라고 즐라서는 안 된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pastors)은 백인이 아니면 흑인입니까? 왜 푸른색 목사님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웃었다. “넌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니?”

“아빠, 어제 아빠가 시편 23편을 읽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목사님들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에서 자란 이 아이는 초장(pasture)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목사님들은 효과적으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아주 조심해야 한다. 어른들도 자신들의 신학적인 어휘력의 한계 안에서 —

목사님들의 것보다 훨씬 더 한정되어 있는 —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수가 많다. 그들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어가 내게는 완전히 낯설었다. 스물일곱의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옆에 있던 아내에게 속삭였다. "이들은 동물을 숭배하던 옛날식 우상숭배자들이군."

어린이들의 잘못된 이해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들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문제를 다루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위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어린 소년이 교회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왜?” 어머니가 물었다.

“성경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라고 써여 있잖아요”(행 17:28).

네 살 먹은 다른 소년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들으셔야 하니 틀림없이 많은 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힌두교도들은 크리쉬나(Krishna)를 그릴 때 많은 팔을 그려 놓는다. 신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도와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원시적인 종교들은 천상의 존재들이 현실을 깨닫

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몸의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있다.

성서에도 거룩들은 “등과 손과 날개, 이렇게 온몸에 눈이 총총 박혀 있었다”라고 써여 있다(겔 10:12). 그들은 또한 각기 귀와 코와 입이 달린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거룩들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자신은 모든 일을 듣고 보고 처리하기 위해 이들보다 더 많은 기관을 갖추고 계시리라 믿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믿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지 못하여 자기 기도가 허사가 되리라는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 번역

● 나는 어린 알렉스에게 욕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He shall pray unto God, and He will be favourable unto him)”를 가르쳤다. 그러나 여섯 살짜리 어린아이는 favourable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암송할 차례가 되자, 그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것이다”라고 외웠다.

너석은 왜 자기의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자기의 번역은 자기의 경험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분이 내게 기도하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자기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기도를 더 잘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삶에 목적 의식, 즉 그

것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 그분에게 기도한다. 그분 역시 성서와 교회와 특별히 보내시는 종들과 내적인 목소리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때로는 심지어 환상과 꿈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알렉스의 말이 옳았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한다.



때로 아이들은 예사스럽지 않은 통찰력을 보여 준다. 여덟 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수님과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런 ‘체험’도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오라고 하셔서 나는 왔어요.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들도 그분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집에는 손님들이 자주 오신다. 다양한 손님들과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다. 한

번은 나와 역시 믿는 형제인 손님과 어떤 철학적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다. 열 살된 아멜리는 방 한 구석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모든 견해는 실제로는 하나의 맹점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견해를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견해에는 눈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의 천장을 보게 되면, 바닥은 볼 수 없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방의 오른쪽을 보면, 왼쪽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나 종교나 사회 계급의 견해는 각기 다른 견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전체를 파악하는 직관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놀랍게도 아멜리가 우리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전체만 보는 것도 역시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체만 보면 전체 외에도 전체를 이루는 각기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거든요. ‘전체’라는 것도 실제의 일부에 불과한 추상에 불과해요. 진리는 모든 부분과 그들의 합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예요.”

물론 아멜리가 정확하게 이런 말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말을 녹음기에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피력한 생각은 명확하게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멜리는 다시 인형놀이를 시작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에큐메니즘(교파를 초월한 세계 교회주의 — 옮긴이)에 빠져 전체만이 진정한 기독교의 대표라고 생

각하고 있다. 그러나 개 교파도 그들이 모여 이루는 세계 교회만큼이나 합법적인 진리의 일부이다. 그리고 세계 교회라는 말도 유기적인 전체가 가능하며, 세계 교회가 유기적인 전체라고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말이다.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종파의 어떤 진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독교에는 각기 다른 종파들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알고 있었다.



여섯 살먹은 소녀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수태 고지(受胎告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처녀가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건 일종의 숲이란다. 아마존에 있는 이 처녀림의 사진을 보아라. 이것은 사람이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숲이란다.”

소녀가 외쳤다.

“아!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를 안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숲속에 그녀가 처녀로 혼자 있는 것을 보았군요. 그래서 천사가 그녀와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왔던 거군요. 천사들은 정말 멋있어요.”





● 다섯 살짜리 알렉스가 심각하게 말했다. “하나님은 내가 천사가 되면 나를 잘 참아 주셔야 할 거예요. 나는 잘 날지 못할테니까요. 난다는 건 아마 스케이트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많이 넘어져야 잘 하게 되는 거 말예요.”

후에 이런 말도 했다. “타락한 천사들(fallen angels : 넘어진 천사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 옮긴이)이란 이제 갓 시작한 천사들이 아닐까요?” ..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녀석의 말은 물론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도 이 지구상에서 천사들과 같은 삶을 시작한다. 아이들처럼 그들도 당장 날기 선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기술 뿐 아니라 영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 미하이가 여섯 살 적에 나는 그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했다는 요한 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깊이 심어 주고 싶었다.

“정말 놀랍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의 “전혀 아닌데요”라는 대답에 깜짝 놀랐다.

나는 놀라서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다그쳤다. 그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은 놀랍죠. 그러나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

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일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되어야겠다.



● 다섯 살짜리 아이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언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줄 수 있었어요. 천사들에게는 큰 슬픔의 소식이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됐거든요.”

우리도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천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의식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천사들을 근심하게 한다.



● 열한 살 먹은 소년이 주일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하는 연극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역할을 맡았다. 그가 무슨 신발을 신어야 할지에 대해 부모님들과 의논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샌들을 신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카우보이 장화를 신고 싶어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카우보이 장화를 신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하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하지만 요셉은

아마 나처럼 치열 교정기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소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현대식으로 표현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신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떤 부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 딸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거듭나진 못했어요. 그녀의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 보세요. 그리고 맨 팔을 다 내놓지 않았어요!”

나는 벽에 걸려 있는 그 부인의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한 세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부인은 수녀복만큼이나 긴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당신의 어머니가 보시기엔 미니스커트 같은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인에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어떤 의사의 열두 살된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게 넘겨 주었다는 이야기를 배웠다(마 27:18 참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짜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우리 아버지는 파산하고 말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에 덧붙여 말했다. “예수님은 또한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사제들의 수입을 빼앗은 셈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은 건 옳은 일이었나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다른 많은 자기 희생적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도 가난한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도 높은 봉급이나 개인적인 안녕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요. 우리가 살았을 때 어머니들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요. 단,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지르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 보기에 완전하게 보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최소한 아이들에게 고통지르지 않는다는 면만이라도 완전해야겠다.



나치 치하에서 내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죄로 죽음을 당했다. 살육 행위가 시작되었을 때 미하이는 겨우 두 살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살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다. 우리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한 친척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같이 보였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군인이나 장난감을 갖고 벌이는 전쟁에 익숙한 것 만큼 미하이는 실제의 살육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다.

어느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한 다음 미하이가 내게 물었다. “그들이 우리도 죽일까요?”

그는 겨우 네 살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쩌면.”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경찰이 와서 우리를 차에 태워 데려갈 것이다.” 내가 설명했다.

미하이는 차를 타 본 적이 없었다. 동부 유럽에서 목사들은 차는커녕 버스비를 낼 돈도 없었다. 그는 좋아했다. “그럼 그들이 우리를 차에 오래 태워 줄까요?”

“꽤 태워 주겠지. 시내를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선 총으로 우리를 쏘아 죽이겠지.”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조금 죽이고 나면, 우리는 후에 많이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겠죠. 경찰은 하늘까지 올라

오는 사다리를 모르니까 그곳까지 우리를 따라오진 못할 거예요.”



● 소련의 침례교인인 피터즈는 비밀리에 인쇄된 성경을 옮기다가 실패되었다. 그의 아내가 슬피 울자, 네 살 된 아들이 물었다.

“엄마, 천당은 아주 더럽고 나쁜 곳이에요?”

“넌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

“엄마 아빠는 늘 나에게 천당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아빠가 천당에 갔는데 왜 엄마가 자꾸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린이들의 말을 어떤 목사님의 말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나는 이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파티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목사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뭇 때문에 이런 파티에서 죽음 같은 슬픈 일에 대해 이야기 합니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단어는 틀린 말이다.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마 22:32).

종종 어린이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뚜껑을 덮지 않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한다.

한번은 알렉스가 식탁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특별히 아이젠하우어 장군과 조지 워싱턴에게요.”

아멜리는 여덟 살 때 많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바울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는 말로 편지를 끝내곤 했는데, ‘우리’란 말 속엔 다른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써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가족이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의 아들은 새롭고 달라진 것들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탄성을 질렀다. “아, 우리집 너무 멋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아, 아버지집 너무 멋있어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년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고전 3:21, 23)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




러시아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한 아이가 일어서서 말했다. “선생님,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건 당신들이 고릴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아이는 이와 비슷한 설명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나는 동물원에서 원숭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들이 뛰어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보고 웃고, 땅콩을 던져 주면 고맙다는 표시를 해요. 나는 잔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원숭이들처럼 행복한 동물에게서 나왔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루마니아는 정교회 국가다. 그런 나라에서는 매달 첫째날이 되면 신부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각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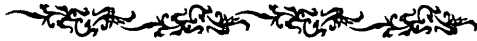
네 살난 개비가 길거리에서 신부님과 마주쳤다. 신부님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라고 소녀를 향해 십자가를 내밀었다.

소녀는 엄숙한 얼굴로 신부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입을 맞춰야 하죠? 십자가는 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신부님이예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쳐 신부의 수염을 붙잡아 신부의 얼굴을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신부의 입에다 입을 맞추었다.



소녀의 말이 불공손하고, 소녀의 행위가 되바라진 것같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 만약 우리가 보잘것없는 물건에 퍼붓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퍼부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밝은 세상이 되겠는가! 나는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울부짖는 소리에는 귀가 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선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소녀의 행위는 옳은 것이었다.



미하이가 다섯 살 때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했죠? 나는 처음부터 크리스천으로 태어났잖아요.”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그의 반 학생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너희들 중 몇 사람이나 크리스천으로 태어났느냐?” 몇 학생의 손이 올라갔다.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너희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쌍한 죄인들로 태어난 거야.”


우리는 죄를 지으며 태어나진 않지만 죄인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헌신적인 크리스천 부모들을 통해 이 은혜가 아주 어린 나이의 아



이에게 전해질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 있어 미하이는 나보다 똑똑했다고 할 수 없다!




 아멜리는 요나가 어떻게 해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왔  
나를 알고 싶어했다.

여섯 살짜리 알렉스는 제법 자신있게 설명을 시도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 그 말은 그가 상당히 똑똑했다는 뜻  
이야. 그는 배에 탔을 때, 배들이 종종 가라앉는다는 것과, 그  
러니까 자기도 어쩌면 고기에게 잡혀 먹힐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안전을 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  
머니에 빨간 고추를 넣고 탔지. 그가 고기의 코에다 고추를  
떨어놓으니깐, 고기가 기침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가 빠져 나  
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에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는 비  
상시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좀더 구체적으  
로, 우리는 악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매일 무장을 갖추고 있는  
가? 성서는 크리스천들이 갖추어야 할 무기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엡 6:13-17 참조).



 알렉스는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  
서,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그것을 설명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경기를 하는 동안엔 우리편이 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몇 초 동안에 경기가 반전되어 우리편이 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성 금요일엔 하나님이 완전히 진 것 같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태를 반전시켜, 부활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골 문에 공을 던져 넣은 거예요. 결국 경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승자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졌다” 혹은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심판이 아직 마지막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섯 살짜리 알렉스가 기사도에 대한 영화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커서 기사가 될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부인과 사랑에 빠져야 해요. 그러나 할아버지, 겁내지 마세요.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건, 아래로 떨어져 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위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어떤 어린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아마 자기 부모들에게서 들었음직한 말을 했다. “너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런 말은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다.

크리스천인 다른 소년이 대답했다.



“정말?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어.”

여덟 살쯤 되었던 크리스천 소년이 말했다.

“아냐, 할 수 있어. 하나님도 한때는 너와 나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자라는 어린 소년이었어. 그분들이 그에게 매일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 만일 예수님이 어떤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악한 부모들이 그에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마시는 걸 가르쳤을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심오한 사상을 어린아이가 자기 식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광대하게 만들’ (magnify)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면에서 더 크게? 우리는 노래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슥 3:17). 우리는 그분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성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도록’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아이가 주일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다가 쫓겨나게  
되자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내 돈 돌려 주세요.”

나도 똑 같은 짓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  
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보고 있었다. 주일  
헌금 접시가 돌기에, 나도 약간의 헌금을 그 접시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리처드 닉슨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닉슨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일 아침 예  
배 시간에 닉슨을 비난하는 설교를 끝까지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약 십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 듣고 있다  
가, 그만 일어서서, 그의 설교를 중단시켰다.

“이젠 그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십시오”(그는 그때  
까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식료품점에 가서 치즈를 달라고 하면 치즈를 주고, 토마토를 달라고 하면 토마토를 줍니다. 그 상점 주인은 따로 있지만,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여기서도 돈을 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리라는 가정하에 현금 접시에 돈을 었었습니다. 목사님이 낙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만, 내 돈은 돌려 주십시오.”

나는 어린이들의 신학을 적용했던 것이다. 교회에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면, 목사님들은 낸 돈 만큼에 해당하는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파산을 하게 될텐데!



 우리는 당시에 네 살 가량 되었던 미하이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녀석이 도중에 공중변소엘 다녀와야 했다. 거기서 돌아온 녀석이 이렇게 말했다.

“저기 책임자는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집을 냄새나게 만들어도 가만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융성한 대접을 하는 크리스천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인가! 그러한 크리스천은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추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과, 큰 길 뿐 아니라 샅길을 다

나는 사람들도 자기가 베푼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 미하이가 어렸을 적에 작은 잘못을 저질러 내게 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를 다시 때리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는 순수하게 자기가 아픈 것보다 나의 슬픔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후에 내 자신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는 욱의 말을 인용하여 미하이가 한 말과 같은 뜻의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 하리이다”(욥 7:21).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은 무시하고, 우리의 원수가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해악과 후에 그가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을 더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이다.



●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사진이 실린 포스터들이 모든 전차와 버스에 나붙었다. 그것은 전쟁범들에게 가해진 중형에 대한 효과적인 선전이였다.

어느날 내가 미하이와 같이 전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미

하이가 내내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녀석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악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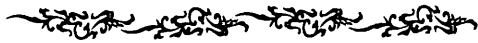
예수님께선 악을 모르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악을 알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아예 악을 모르는 것이 훨씬 좋다.



● 마하이가 다섯 살 때 나는 그가 잘못된 일이 있어 심하게 나무랐다. “하나님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는 네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있다. 그 페이지에 하나님은 네 죄를 낱알이 적어 놓으신다. 거기에 그저께도 하나 적혔고, 어제도 하나 적혔는데 너는 오늘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가 대답했다. “아빠는 하나님이 내가 저지르는 나쁜 것만 써 놓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착한 일은 써 놓지 않나요?”

그의 말이 옳았다. 하나님을 법을 어긴 사람만 단속하는 경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려니와 해로운 생각이기도 하다.



● 어떤 아이가 동전 두 개를 받았다. 하나는 자기가 갖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리는 것이었다. 아이는 동전 두 개를 손에 쥐고 교회로 가다가 도중에 넘어져 동전들을 떨어 뜨렸는데, 하나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동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이들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 자기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 미하이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참석하는 철야 기도회에 따라와서 중간에 자버리면서도 꼭 따라오려고 했다.

녀석은 예배가 너무 짧다고 불평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 가서 사는 게 어때요?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야 해요.”

그는 정말로 교회가 놀이터인 양 행동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시에 녀석은 시끄럽게 놀아서 예배 전체를 방해했다. 나는 집에 오자 녀석을 벌하기로 결정했다.

“네가 목사의 아들이라서 버릇없이 굴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엄히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아빠는 내가 설교를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요.”

“좋다. 그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아빠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열심히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녀석과 싸울 수가 없었다.



아멜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때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많은 이 어린아이에게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두 살 되었을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그녀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 주고, 피가 흐르는 그분의 가슴을 가리키며 ‘예수’라는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굉장히 심각해지더니,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건만, 사진에 두 번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아이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아이들의 이해력이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멜리가 세 살 때 내 아내가 그녀에게 사탕을 하나 주었다. 아이는 사탕 상자에서 사탕을 하나 더 꺼내 내게도 주었다. 나는 가볍게 사양을 하면서 아이에게 설명했다.

“오늘은 금요일이란다. 이날은 우리가 먹지 않는 날이다.”

물론 그녀는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금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금요일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했다(이 관습은 특히 핍박받는 교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아멜리는 두 개의 사탕을 다 할머니에게 돌려 주며 말했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하나님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하나님, 교회에 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설교는 너무 지루해요. 하나님께서 새 노래 좀 지으실 수 없으세요? 당신의 친구 배리로부터.”

참된 종교는 아름다운 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지 않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시 149:1).



여섯 살 먹은 도로시는 어머니가 자기의 인형 엘리자벳을 그냥 인형으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 항의했다.

“그녀는 인형이 아니라 소녀란 말예요. 그녀가 만약 그냥 인형이라면 내가 그녀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그냥 인형이 아니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대접하면, 나는 그를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짓 신을 따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늘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존즈타운의 악몽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믿음과 신뢰 문제에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성숙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의 아홉 살난 아들이 질문을 받았다.  
●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너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니?”

아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목사님들은 일은 너무 많이 하고, 월급은 너무 조금 받아요. 아버지가 연관공이 되었다더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거예요.”

여섯 살난 소년이 부모와 같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식사 도중에 아이가 여주인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요리할 줄을 모르는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처럼 정직하고 솔직하라고 말씀 하셨지만, 그것은 버르장머리 없고, 고약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었다. 진리는 언제나 예의바름과 친절로 양념해야 한다.



● 내 조카딸 중의 하나가 남편의 해외 출장 중에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을 치루게 되었다. 그녀는 침구가 부족하자, 그때 다섯 살이던 알렉스에게 설명했다. “알렉스야, 너는 나와 같이 자야겠다.”

“난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강한 원리 원칙을 지켰으면 좋으련만!

크리스천 시인인 발라다레스는 쿠바의 감옥에서 이십이 년을 지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결혼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아직도 한 방을 써보지 못한 그들 부부를 위해 침실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와 같이 잘 수 없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거절했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결혼했을 뿐, 아직 기독교식 결혼식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그와 알렉스는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 나의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서 보기에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 식당에 간 적이 있었다. 알렉스가 아빠에게 물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누추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알렉스는 자기에게 식사 기도를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하

나님, 오늘 당신께서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바깥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흉하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언제나 안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다섯 살된 유대 아이인 빅터가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떠신지 보고 가요.”

우리는 이 아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는가?

빅터는 또한 크리스천들이 모인 기도회에도 갔는데,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당황해서 물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아이의 질문은 아주 타당한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한번도 당신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 어떤 사람이 열두 살된 유대 어린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이런 경고를 했다.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인데, 네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선생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유로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데 선생님이 이것들을 믿는다면, 선생님은 멸망하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세기 전부터 내려오는 이 질문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진리란 무엇이나?” 그러나 빌라도처럼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꼭 해답을 얻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맨 처음 물어야 할 질문은 “누가 진리이나?”이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내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 14:6).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배운다(요 17:17). 아까 말한 유대 소년은 궁금하게 여길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믿지 않는가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까지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백만장자의 웅장한 능(陵)을 본 어떤 아이가 탄성을 질렀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굉장히 좋은 집들을 많이 가 본 알렉스가 말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걱정이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가 없으니까요.”



●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을 들은 여섯 살난 아들이 — 그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늘 보아왔다 — 말했다.

“난 두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둘로 나눌 순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소년이 부모에게 말했다.

“내 어깨와 팔이 아파요. 나는 밤새 아빠가 이쪽 팔을 잡아 당기고, 엄마가 다른 팔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느꼈어요. 온몸이 조각조각 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붙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직관을 넣어 주셨다.



● 러시아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모스크바에 있는 무신론 박물관을 견학시킨다.

한 안내인이 한때의 학생들에게 종교의 해악을 증명하도록 고안된 전시품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동물로 진화했나를 설명하는 그림들, 끔찍한 종교 재판 장면 등을 구경했다.



그리고 나서 안내인이 오래된 십자가를 보여 주었다.

“학생들, 옛날엔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 주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무식했던거죠. 그들의 종교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답니다.”

열두 살된 소녀가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 동무,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우시곤 했구요. 전 아버지를 속이고, 학교에선 부정 행위를 했어요. 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전 죽는 게 무서워요. 전 장례식을 볼 때마다 ‘언젠간 나도 저렇게 관 속에 눕게 되고, 모든 게 다 끝장 날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나 전 살고 싶어요.”

소녀는 말을 계속했다.

“현대의 지식인들이 이제 금방 저희들에게 들려 주신 말을 믿을 수 없다 해도, 저는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똑똑해서 죄에 짓눌려 살고, 천당을 놓치는 것보단 어리석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는게 더 좋아요. 전, 선생님 동무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어요.”



● 아멜리가 꿈 속에서 예수님을 뵈는 적이 있었다. 그분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내게 오너라.” 아이는 춤추듯 빙글빙글 돌며 그분에게 갔다.

예수님에 대한 꿈은 드문데, 그런 꿈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 겐하디 말라초프라는 러시아의 크리스천이 선교받은 감옥 생활을 다 끝내고, 석방될 때가 되어 그의 가족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감옥으로 찾아왔다.

감옥 문에서 그의 딸이 물었다.

“아버지, 어디로 가실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집에 가야지.”

“아녜요. 아버지가 계실 곳은 바로 여기예요.”

“왜 그러니? 우리가 같이 살게 된 게 기쁘지 않니?”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로, 태어나서 한번도 집에 있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딸이 말했다.

“전 언제나 아버지가 계실 곳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감옥이란 말을 들어왔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아버지를 보면 놀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의 크리스천의 역할이다.



● 미셸 사크하로브의 딸이 어머니와 같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보러 갔다.

아버지는 아이를 향해 팔을 뻗으며 말했다.

“애야, 이리 오너라.”

아이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나는 저 사람한테 가기 싫어요. 난 아빠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아빠는 아주 미남이었어요. 뽀뽀 마르고 주름살 투성이의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예요.”

자기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보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당하고 투옥된 크리스천들의 자녀들만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탄생하여 상처받고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로 나타 났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라쵸프의 딸이 사크하로브의 딸보다 날카로운 영적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 성탄절이 가까워졌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 다음 주일에 한 학생이 물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집을 못 구했어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아주 좋은 반응이다. 예수님의 가족은 집을 가져야 한다. 내 집에라도 기꺼이 모셔야 한다. 더 좋은 것은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 아멜리는 여덟 살 때 이스라엘을 며칠 동안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고양이들이 활취지 않고, 개들이 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착한 나라예요.”

그러나 후에 고양이를 만나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난 후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다.

“어떤 고양이는 활취지만, 아마 그들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고양이들일 거예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는 말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꺾인 후의 백합이 아닌 들에서 자라고 있는 백합을 보고 사냥꾼들에게 잡혀 죽은 새가 아닌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신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대상 16:29)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서 눈을 돌려 달라고 기도한다. 우리도 보기 흉한 것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고, 거룩한 땅과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성경에만 눈을 뜨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린 알렉스가 담장 위로 기어오르다 다쳤다.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며 녀석이 말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떻다는 것을 알겠네.”

우리도 상처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끌고다에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기로 하자.



●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아멜리아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곳을 다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분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자라나신 나사렛, 설교하셨던 갈릴리와 유대의 여러 곳들, 재판받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 등.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거꾸로 해요. 먼저 그분이 영광을 입고 승천하신 곳을 보여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곳을 보더라도 그리 슬프진 않을 거예요.”

그러자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만났던 러시아의 장교가 생각났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세례, 팔복산상에서의 설교, 비유, 기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장교는 굉장히 기뻐했다. 그는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외쳤다.

“요정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군요. 나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체포되

고, 묶여서 언도를 받고, 채찍질 당한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분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들의 요구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자기 의견에 동의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아 비통하게 울었다. 그는 구주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죽고 말았으니까.

그는 내가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다시 기뻐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애초에 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도 될 뻔했다.



네 살박이 테리가 종교 방송을 듣고 있다가, 설교자가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분은 나를 잊었나 봐요. 예수님은 저분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도 돼요.”

소년이 흥분해서 외쳤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걸 다 가져가기 바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시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내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한 소년이 거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여 평생을 들여다 보고 살았다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소년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머린랜드에 구경갔을 때 보니까 고래와 물개들이 기가막힌 재주를 다 피우던데요. 몸무게가 사십 톤이나 나가는 사람이 뒤로 들 수 있겠어요? 성경은 왜 예수님을 사자나 양이라고 불려요? 사자는 사람보다 강하고 양은 사람보다 겸손하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간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사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나르시시즘과는 달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야 한다.



러시아의 침례교인인 미첼 호레브가 감옥에서 자기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를 써 보냈다. 그의 아버지가 순교하자, 가난한 그의 어머니는 네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



었다.

한번은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유일한 식량인 감자의 껍질을 벗기면서, 그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미첼은 그 말에 화를 벌컥 냈다. 그는 성경이 지겨웠다.

“엄마가 읽으세요. 감자는 내가 깎을게요.”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구나. 첫째 그걸려면 내가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안경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네가 좀 읽어다오.”

“그럼 어디를 들고 싶으세요?” 그가 마지못해 물었다.

“산상 설교를 읽어다오.”

‘그렇게 긴 테를,’ 미첼이 생각했다. 석 장이나 되잖아. 그는 글을 잘못 읽는데다 시력도 좋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찾아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어려운 단어를 겨우겨우 읽으며 시작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자 갑자기 그의 눈에는 성경에 써여 있지 않은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부모님은 복이 있도다. 나의 아버지는 쇠사슬에 묶여 고생하고 있고, 나의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있다. 어머니의 삶도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계속 읽었다. 예수님은 아마 우리 부모님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모양이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은유하시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도 굶주리거나 불쌍한 사람과 나누어 먹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부모님은 마음에 한 점 오점도 없는 분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들은 증오가 무엇인지



도 모른다. 그분들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공산주의 자들과도 평화스럽게 지낼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 이 축복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가 없구나.

그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갔다.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던가! 이 책처럼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그의 부모님에게 “이 아이의 눈이 약합니다. 아마 잘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곧 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의사의 우울한 진단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기 미첼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들 하나와 딸 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시력이 나빠서 어찌면 볼 수 없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기도 좀 그만두세요.”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흘러내렸다. “아이가 장님이 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믿는거요? 이 아이가 장님이 되면 공장 일이나 다른 어떤 일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성경을 점자로 읽으면 되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미첼은 혼자 생각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십자가에서 죽기로 운명지워진, 선지자들이 ‘슬픔의 사




람'이라고 묘사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마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는 산상 설교를 쉬지 않고 읽었다. 석장을 다 읽고 났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는 정말로 목사가 되었고, 그 결과 그 자신도 여러 해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그는 감옥에 있고, 거의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오로라 시에 살고 있는 찰리라는 여덟 살난 소년이 목매달아 자살했다.

그는 때로 아주 장난이 심했다. 한번은 고의로 다른 학생들의 학용품을 부셔 버렸다. 거기에 대한 벌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용돈으로 그가 부순 학용품값을 물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났다. “내가 말썽을 부리면 용돈을 빼앗기는데, 우리 부모가 크게 싸우고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용돈을 빼앗지 않는다.” 그는 최후 항의의 수단으로 여덟 살의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다.

찰리의 동생이 그의 할머니에게 말했다. “형은 하나님을 방문하기 위해 천당에 갔으니까 두어 주일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찰리는 모르고 고통을 겪은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나무라는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눈을 마주 대할 수 있을까? \*

레닌의 전기를 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레닌이 어려서 한 번 매를 맞은 것이 그를 평생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 결석한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신부가 “때려요, 몽창 때려요”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레닌이 엿들었기 때문이다.

티토가 어린 복사(服事)였을 때 한 차례 뺨을 맞은 것이 그를 혁명가와 대량학살자가 되게 했다. 신부를 돕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신부에게서 뺨을 맞았는데, 그는 평생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찰리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때리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큰데도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나만 실수 좀 했다고 벌하신다”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의 신학은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 기대하는 것만큼 바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어른들은 너무 쉽게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자신도 그 계명들을 다 지키셨다.



몇몇 소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

\* 덴버 포스트(Denver Post), 1985, 4, 22.



리는 사실을 명심시키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 놓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다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를 되풀이해 물었다.

한 소년이 옆의 소년에게 속삭였다. “우리 여기서 빠져 나가자. 별의별 것을 다 우리 잘못이라고 하는데, 다음엔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우리 잘못이라고 하겠다.”

물론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전반적인 세상사가 다 그들의 탓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가득찬 세상에 태어났다. 모든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그것이 어린 아이의 가슴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십자가형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어린이가 말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일 리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물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눈에 눈물이 났을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어떤 소년의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죽어 가고 있었다. 소년은 교회에 가서 요람에 누인 아기 예수의 상을 꺼내 가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상에게 말했다.

“자, 이제 어머니가 없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의 어머니가 회복되자 소년은 아기 예수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린이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어린아이를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 동기

● 미하이가 겨우 다섯 살 때, 저녁에 집에 오니 녀석이 굉장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녀석이 전기줄을 가지고 놀다가 전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려고 아기보는 사람이 녀석에게 말했다.

“넌 이제 죽을 거야.”

미하이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나에게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혹 네가 죽더라도 넌 천당에 갈테니까.”

녀석이 말했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난 여기 살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고 쓴 적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빌 1:23).

아멜리가 열한 살 적에 말을 몹시 가지고 싶어했는데, 나는 그때에도 그녀의 동기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말 한 필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셈이냐!”

“내가 말을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란 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때리잖아요. 이 말을 만약 서커스단에서 사간다면, 그들은 이 말에게 재주를 가르치려고 때릴테니까, 말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내가 이 말을 사서 돌보아 준다면, 말은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에서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가 주장하는 의도가 정말로 진지한가?



어떤 무신론자의 아들이 그 부모에게 했다는 말 속에는 모순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단 말은 하지 않는게 더 안전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일단 천국으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아멜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루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를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졸라서 나를 놀라게 했다.

“왜 그러니? 넌 아프지 않잖아.”

내가 말했다.

“그러나 루르에 가서 병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단 말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잠자고 있다가 이따금 부흥회나 대집회가 있을 때 깨어나면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인가?

자기 양떼에 대한 목사님들의 주된 관심사는 죄인들을 회개 시키려는 것보다는, 교인들에게 죄가 들어오려는 순간 어떻게 죄를 쫓아낼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욕정과 순수치 못한 생각을 멀리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라야 한다.



● 아내와 나는 어떤 인디언 가족과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의 다섯 살 먹은 아들이 생전 처음 아주 훌륭한 구두 한 켤레를 갖게 되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구두를 벗고 있었다.

식사 도중에 그는 “누구든지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엿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구두 한 짝을 벗어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걸 받지 않았더니, 녀석은 자기가 무얼 잘못했느냐 아니면 내가 신자가 아닌 탓이냐고



물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신자인 것을 증명했다.



알렉스는 네 살 적에 자기 누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될거야.”

자기도 자기 계획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느낀 알렉스도 한 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커서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이 될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야망인가! 우리도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슌 3:17).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탕자도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사표를 내리는 통보를 받았다. 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동안 새로 개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더구나 그분은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함으로써 교인들이 수근대기도 했다. 헌금 접시가 들고 있을 때, 아홉 살 먹은 아이가 접시를 돌리는 집사님에게 접시를 마루바닥에 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집사님은 소년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소년은 접시 위에

올라섰다. 교인들은 소년이 자기 자신을 헌금으로 바쳤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소년이 후에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된 로버트 모팽이었고 그의 사위가 데이빌 리빙스턴이었다.

우리는 이 소년에게서 무엇이 가장 훌륭한 헌금인가를 배울 수 있다.



 19세기에 우간다에 있던 한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의 교회에는 선물의 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 선물을 미리 보내지 않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다.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가 선물더미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머리를 들어보니 작은 아프리카 소녀가 의자 사이에서 있었다.

“너,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니?” 선교사가 물었다.

소녀는 아주 수줍은 태도로 교회 앞으로 나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교사님, 저도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소녀는 초라한 옷 속으로 손을 넣더니, 지갑을 하나 꺼냈다. 그것을 열고, 소녀는 은과 금을 한 줍씩 연달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그것의 값은 거기 쌓여 있는 모든 선물들의 값보다 훨씬 더 컸다.

선교사가 말했다. “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이 돈을 누구에게서 가져왔는지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돌려 주겠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다 내꺼예요.”

“그럴 리가 없다. 넌 그러기엔 너무 가난하잖니?” 선교사가 소리쳤다.

그러자 소녀에게서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소녀는 교회에 헌금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자기 희생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중국 내륙 선교회의 서고에는 백년도 더 전에 그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내졌던 편지가 들어 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중국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저축해 온 돈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아홉 살난 소년에게서 이와 비슷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범브란트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공산국가의 감옥에서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통에 관해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목사님에 대한 평을 듣고 기분 나빠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데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엔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다니, 그건 목사님 잘못이에요. 많은 로데시아인들이 목사님의 일을 도와드릴 거예요. 전 목사님의 선교사업의 총책임자(general director)가 되어드리겠어요. 한꺼번에 장군(general)도 되고, 총무(director)도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네 장군들도 구세군의 장군들처럼 제복을 입나요? 꼭 알려 주세요.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의 천사들이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뵈는답니다.

나는 총책임자(general director)로서 그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네 페이지에 걸쳐 써보냈다.

결과적으로 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우리 선교회의 총책임자가 되었고, 아홉 살짜리 '선교사'는 어머니의 보조원이 되었다.



여섯 살된 소년이 네 살된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을 보고, 어떤 어른이 물었다.

“무겁지 않으나?”

“아뇨, 제 동생인 걸요”  
소년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 우리가 떠나는 손님들을 차에까지 전송하러 밖에 나간  
사이 아멜리만 집안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그녀는 따라 나오면서 말했다.

“나 혼자 집안에 있으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될까  
봐 겁이 났어요.”

사람들은 혼자 있거나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왜 혼자일 필요가 있는가? 하  
나님의 봉사 영역에는 혼자인 사람은 없다. 크리스천들은 다  
른 형제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한다.

아멜리의 말을 들으니, 오래 전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말이 없던 어떤 미친 사람  
이 생각났다. 한번은 우리가 그를 점심에 초대했을 때, 아내는  
평상시처럼 그의 앞에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을 놓았다.

그가 말했다.

“이 나이프 좀 치워 주세요. 나는 내가 미쳤다는 걸 압니  
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리석기 때문에,  
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제 자신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절대로 칼을 손에 쥐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어른들과 건강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사람들을 알콜중독이나 다른 나쁜 습관성 질환에서 구해 내려는 장치들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나는 아주 성공적인 방법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다섯 살짜리 소년이 말했다. “엄마, 제가 성탄절 선물로 제일 원하는 게 무언지 아세요?”

조그만 녀석이 무슨 피람! 그의 어머니가 생각했다. 무슨 소릴 하려고 저러지?

그러나 아이의 대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엄마예요. 나는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서, 엄마가 오래오래 사시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녀석은 통통한 팔로 어머니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야만 했다. 그후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네 동생과 나누어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네 동생에게 큰 쪽을 주란 말이다.”

녀석은 사과를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면서 말했다. “동생에게 줘서 개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와 사과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분

과 같이 될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다.



● 어린이들은 그들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한 것이 아닐 때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직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목적어(object)가 들어가는 문장을 써보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이런 문장을 썼다. “선생님, 당신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물었다. “고맙다. 그러나 무엇이 이 문장의 목적어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죠.”

학생이 솔직하게 대답했다(object는 ‘목적’이란 뜻도 됨 — 옮긴이).



● 우리 손자 알렉스가 네 살되었을 때, 나는 녀석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녀석이, “아직은 안 돼요”라고 말했다. 한 시간 후에 그는 내게 와서 “이제 키스하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왜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아까는 제 키스에 사랑이 꼭 차있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입맞춤은 언제나 충분한 사랑으로 가득 차있는가? 사랑이 없는 입맞춤처럼 슬픈 것은 없다.





● 아홉 살인 루크가 사람들이 집시들은 도둑질하며 접이나 본다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진 사탕들을 나누어 먹고 싶어했다. 그는 자기의 이런 뜻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집시들의 발을 씻어 주겠어요. 그 사람들의 발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 아이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어려서 죽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집시들을 나와 함께 천당에 데려가고 싶어요.”



● 아멜리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를 죽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으세요.’ 그리고도 그가 나를 죽이면, 최소한 나는 천당에 가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생각은 제 나이에 비해 지혜로웠다. 공산주의 국가나 회교 국가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을 고문하고 처형할 사람들 앞에 끌려가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심문관들이 지하 교회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해 답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아이작 파인슈타인은 루마니아에서 일한 유대계 크리스천으로 유대인 대학살시에 죽음을 당했다. 그는 여섯 자녀를 남겼는데, 그중 한 아이는 아홉 살에 죽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에게는 다섯 아이가 더 있잖아요. 저 세상에 가 있는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믿는 어린이가 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눈먼 소녀가 연을 날리고 있었다. 누가 소녀에게 물었다. “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넌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

“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연을 보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연이 나를 위로 잡아당기는 느낌을 맛볼 수 있어요.”



● 어떤 아이가 물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나요?”

“그럼, 그러나 그게 너한테 좋은 것일 때에만.”



“그러나 어떻게 간에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니까,’ 구태여 내가 좋은 것만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네요. 내가 나쁜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그것은 가능하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악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의 파멸이었다.



● 캐더린이란 소녀는 열두 살이 되기 전에 신·구약 성서를 합해서 여덟 번이나 통독했다. 그런 소녀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한가?

그녀는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되어 구세군의 공동 창시자가 되었다.

그런 소녀는 스스로 본을 보여,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 진젠돌프 백작은 네 살 때, 독일의 뒤셀돌프에 있는 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 그림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글귀가 있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 소년은 그의 생애를 구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질문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믿음은 헛소리일 뿐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어른이 되어 모라비안 교단을 조직했는데, 그 교단의 좌우명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자”이다. 그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린랜드, 인도, 아프리카에까지 갔다.

이 하나의 그림이 크리스천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배시에 성화의 사용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 성경과 성경이야기 책을 이용하고 있다. 어쩌면 미술이 모든 어른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어린이의 품성을 일깨울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의 신학은 종교적인 예술을 반대하지 않는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바라보기에 딱한 한 소녀를 어른들도 아이들도 피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녀의 끝없는 불평 불만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

드디어 소녀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재미있는 우스개소리를 하리라. 심지어 자신의 불구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리라.

곧 사람들은 그녀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마

침내 그녀는 전문적인 코미디언이 되었다.



● 1984년 11월에 갈리나 빌친스카야는 오 년간에 걸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었다. 그녀는 그 오 년간 단 석 달 동안 잠시 자유를 맛본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하바로브스크에 있는 지하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의 감옥 생활도 결국은 신앙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석방되었을 때 스물일곱 살이었다. 바깥 세상에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준 러시아의 교회는 그녀의 몸이 몹시 마르고 줄어들어서 마치 열한 살짜리 소녀와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 색깔은 노란색이었고,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지고 없었다. 그녀는 힘이 없어 미소짓는 일조차 힘들어했다.

감옥에서 계속 굶주렸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지방질을 생산해 낼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잡혀가지 않을 경우에 —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지만 — 그녀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으려면 여러 달이 걸려야 하리라는 보고였다.

옛날에 그녀를 알았던 한 친구가 그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외쳤다. “그들이 너에게 어떤 짓을 했니? 넌 꼭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구나!”

갈리나가 온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이 보이도록 만들어

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나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그렇게 만든거지.”



러시아의 침례교인인 미하일 코흐레브는 자기가 겪은 어린시절의 일을 한 토막 들려 주었다.

1941년 레닌그라드가 포위되어 있을 동안에 그는 어머니와 세 명의 다른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다). 그 가족은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미하일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곤 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빵 한 조각도 없지?

어느 날 어머니는 치즈 한 조각을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네 조각으로 나눈 다음 방을 나갔다. 미하일은 어머니가 왜 다섯 조각으로 나누지 않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자기 몫의 조각을 집어 들었다.

몇 분 후 그의 어머니가 돌아와서 물었다. “누가 치즈 한 조각 가진 것 없니?”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이웃에 사는 콜리아 할아버지가 굶주림으로 죽어 가고 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 이냐고 여쭙봤더니, ‘뭐든 먹을 것’ 이라고 하시더라.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꼭 들어줘야 한다. 네 치즈 조각을 그 할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겠니?”

미하일은 콜리아 할아버지가 치즈를 어떻게 먹는지 보려고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머니가 죽어 가는 노인의 입에 치즈를 대어 주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 노인은 작은 음식 덩이도 삼킬 수 없었던 것이다.


미하일은 치즈를 노인의 입에서 집어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언제 다시 그가 치즈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아셨다.

드디어 그가 말했다. “나는 이 치즈를 할아버지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찾아가진 않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기뻐했다. 후에 코흐레브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같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임을 증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기억하자. 옛날 분들 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 있는 분들도.



 열 살쯤된 남루한 옷에 맨발의 이집트 소년이 나일 강을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모세는 어렸을 적에 바구니에 담겨 저 강을 떠내려갔어요. 하세풍 공주가 어린아이를 강에서 구해 주었고, 그 아이는 자기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무지에서 구했어요. 나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나를 구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후에 어떤 어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구해 주는 아이가 또 하나의 히틀러가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우리는 자라면서 얼마나 냉소적이 되어가는가! 어린이들은 어른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덜 한 것 같다.



열세 살 먹은 회교도 소년이 어떤 크리스천이 우리가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까지 돌려대야 한다는 예수님의 숭고한 가르침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교훈을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는 그 크리스천의 뺨을 때렸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울었다. “나는 너를 위해 운다.”


깜짝 놀란 회교도 소년은 성서의 어느 부분에 그런 이상한 명령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말했다. 소년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장 전체를 읽은 후 거기에 있는 교훈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욕하는 버릇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고, 또 애통하고 가난한 것에서 어떤 ‘축복’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어떤 지혜로운 크리스천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다. “산상 설교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그 명령을 다 지킬

순 없다.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은 이때까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러니 그분을 네 마음 속에 영접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소년은 그렇게 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다섯 살된 아이가 의사들이 '무의식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로부터 깨어났다.

그는 부모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이 나를 돌려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고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 우리를 되돌려 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믿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분이 우리를 돌려보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고 돌려보내신 것만은 분명하다.



 미하이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천주교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좋다. 너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물었다.

그는 그날 자기를 실망시킨 종교적 경험을 두 가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부 시간에 자기가 집에서 한 숙제가 있는 연습장을 잊고 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에서 학교까지의 짧은 거리를 숙제장이 날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빠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에서 번쩍 들어 텔아비브까지 오게 했다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숙제장을 가져다 주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숙제장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는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후에 종교 시간에 그의 선생님이 — 그는 수도사였다 — 높은 발판 위에서 일하던 석공이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걸고 욕을 했더니, 그에 대한 벌로 성모님은 바로 그날 그가 발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도록 내버려두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 없게 된 미하이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아버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모님을 나쁘게 말한다면, 성모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 석공은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떨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미하이의 이 말에 그 선생님은 미하이의 뺨을 때렸다.

우리는 미하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라고 결정했다. 우리는 그에게 역지로 기도를 시키지 않았다.

동시에 나는 천주교의 대주교를 알고 있는 한 부인에게 미하이의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대주교는 수도사가 미하이에게 사과하도록 지시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미하이도 다시 우리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후 감옥에서 나는 바로 그 수도사와 같은 방에 갇혀 지낸 적이 있었다.



●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로라 델 카르멘 비쿠나의 아버지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도망쳤을 때 그녀는 아직도 어린 아기였다. 곧 아버지는 죽고, 가난한 어머니는 남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재봉사로 일해야만 했다.

매우 아름답던 어머니는 곧 돈 많고 잔인한 집주인인 마누엘 모라의 밥이 되었다. 그는 전에 살던 여자에게 싫증이 나니까 짐승처럼 뜨거운 다리미로 그 여자를 지진 다음, 내쫓아버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모라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린 로라는 굉장히 괴로워했다.

로라는 열 살에 맨 처음 성만찬을 떴었다. 1901년 그날, 로라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고 공책에 써 놓았다.

1. 하나님,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 제 영혼과 제

마음과 제 자신을 드립니다.

2. 저는 죄를 지어 당신을 욕보이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당신과 헤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멀리 하겠습니까.
3. 저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하며, 당신이 매일 사람들, 특히 제 친지들에게서 받는 모욕을 씻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을 제 일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로라는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머니에게 욕보였던 바로 그 모라의 욕정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도망쳐야만 했다. 이러한 모욕에 분개한 모라는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장대에 묶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 로라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불쌍한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곧 그녀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녀가 그렇게 아픈데도, 모라는 그녀를 유혹하려 했다. 이웃들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구출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짧은 생애가 끝나려 할 무렵,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 드렸어요. 제가 이 년 동안 제 목숨을 그분에게 바쳐왔으니, 어머니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요. 어머니, 제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약속했고, 로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죽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녀의 나이 열세 살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과의 약속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모라가 권총을 들이대도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바치는 이런 어린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신다.



 어떤 아이가 안경을 쓰면 자기도 안경을 쓴 회사 중역인 아버지와 같은 위엄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경이 쓰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를 안과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의사가 그에게 찻트를 보여 주면서 어떤 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첫 줄에 있는 글자들은 아주 잘 보여요 — 에이취, 아이, 씨.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있는 에스, 에이, 비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재미있어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이 아이와 같은 점이 있다.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우리의 야망과 편견에 꼭 들어맞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내다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한다.



● 나는 평생 할렐루야를 여러 번 외쳐 보았지만, 내 왼수의 머리를 향해 외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내 손자는 다섯 살 때, 비록 미군이 될지, 이스라엘 군인이 될지, 아니면 구세군의 군인이 될지 확신이 서진 않았지만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가 총을 쏠 수 있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 눈치였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총알을 쏘지 않고 할렐루야를 쏠 테니까요.”

나는 이 말이 전적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할렐루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일까?

여호수아 때에, 유대인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활을 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던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크게 무찌른 여호사밧이 큰 승리를 거둔 경우도 생각해 보라. 그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너희들은 이번 싸움에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원수들은 많은 노획물을 남겨두고 완전히 패주했다.

우리도 원수를 향해 할렐루야를 쏘면 좋을 것이다.



● 나는 언제나 손자, 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을 좋아했다. 알렉스에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백성들 앞에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든 신을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든지 아니면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짐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나는 알렉스에게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다.

“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했겠느냐?”

“아뇨!”

“그럼 산채로 불 속에 던져도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아뇨!”

“그럼 어떻게 했겠느냐?”

“나같으면 느부갓네살을 불 속에 던져 넣었을 거예요.”



● 다섯 살짜리 알렉스가 예수님이 백 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가,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은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회개는 필요없는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너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얼 배웠니?” 알렉스의 아버지가 물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더 조심스럽게 지켜야지요. 그랬더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성직자들은 부흥회를 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크리스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는 함정과 셋길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 미하이가 네 살 때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어쨌으면 좋겠어요. 전 지루해 죽겠어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

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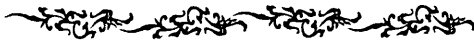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마음 때문에 종종 아무 쓸모도 없는 신학적 해설로 이러쿵저러쿵 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모양을 그리려다 꾸중을 들었다.  
“어리석은 짓 그만두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아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모두들 알게 될거예요.”



언제나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미하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 오늘은 무얼 갖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느날 아침 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야기를 읽어 주고 나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미하이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다.

“너는 성전이다. 그러나 네 속에는 쫓아내야 할 장사꾼들이 들어 있다.”

“무슨 장사꾼요?”



“하나는 아버지에게 무얼 갖고 왔느냐고 묻고,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는 장사꾼이다.”

그도 내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사꾼도 있다. 너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만일 그분이 너에게 줄 낙원이 없다 해도 넌 그분을 사랑하겠느냐? 네가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장사꾼의 마음이다.”

미하이가 대답했다.

“우린 그분이 우리에게 낙원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는 척 하고 그냥,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해요.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알고 있지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네 아이들이 자기집 응접실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여 주는 연극을 혼자서 구경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이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요셉을, 하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의 역할을 맡았다. 네 번째 아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동방에서 온 세 박사예요.”

그녀에게 세 박사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자, 아이가 “왜 안 돼요?” 라고 되물었다.

그렇다.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단 하나의 자신(self)이 아니라 자신이 모인 덩어리이다. 우리는 바깥 사람,



속 사람, 가슴 속에 숨은 사람, 즉 이드(Id), 에고(Ego) 그리고 슈퍼에고(Super-Ego)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고, 우리 자신과 정신적인 논쟁을 벌인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점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이었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자기의 선생님을 부인한 점이 제일 나쁜점이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분리된 인격체’이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아마 우리 중에서 제일 통일된 인격체일 것이다.

한 아이가 세 박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만일 어른이 그런 역을 맡았더라면, 속에 있는 세 사람이 싸우느라고 연극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아이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와 같이 늙어가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 할머니를 더 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젊어질 것이다.



강철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의 주인이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열 살짜리 소년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는 토끼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 토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 사는 소년들에게, 만약 그들이 토끼들을 위해 토끼풀과 민들레를 뜯어 오면, 그들의 이름을 따서 토끼들의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카네기는 아주 이른 나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가를 알아냈고, 그 지식을 평생 동안 이용하였다.

몇 년 후에 그는 자기가 만든 철도 레일을 팔고 싶어서 피츠버그에 있는 자기 제철소의 이름을 이탈리아에 있는 철도 회사의 사장인 에드가 탐슨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는 어렸을 적의 경험을 잘 이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 점에 관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읽고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창 12:2)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창 3:5).

브라질의 왕인 돈 페드로는 자기 나라의 최초의 병원을 지을 작정이었으나,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 일만 달러를 내는 사람에게는 남작의 칭호를 주고, 이만 달러를 내는 사람에게는 자작의 칭호를 주고, 사만 달러를 내는 사람에게는 공작의 칭호를 주겠다고 칙령을 발표했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병원이 완성되었다. 개원식이 있던 날, 현판을 덮고 있던 베일을 벗겼을 때, 거기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 병원은 인간의 자만심이 인간의 불행에게 바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쯤은 좌절감이나 자신감의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 우리를 포함해서 — 우리가 바라는 것 만큼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려면 그들 수준에서 그들에게 접근하여야 한다.

어린 앤드류 카네기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정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었다. 우리도 그의 방법을 채용하여 교회 안의 모든 개인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또한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자.



●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하여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늘어 놓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겨우 예레미야까지 밖에 나가지 못했다.

“자, 이제 에스겔 차례지요? 이 위대한 선지자를 어느 자리에 놓아야 할까요?”

한 소녀가 얼른 대답했다.

“내 자리에 놓으세요. 나는 갈테니까요.”

간결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설교자에게는 이보다 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 소련에서 발간되는 잡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신론 잡지인 나우카 이 레리지아(Nauka i Religia)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시베리아의 툰드라(나무 하나 없는 북극 지방의 평야)와 타이가(높이 많은 삼림 지역)로 도망친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사십 년간 고립되어 살아온 이들을 인류학자들이 찾아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두 어린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개 한 마리가 죽자, 한 아이가 말했다.

“우리 개를 묻고, 무덤에 십자가를 세워 주자.”

다른 아이가 말했다.

“그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개는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

“그럼 우리, 무덤에 꽃다발을 놓아 주자. 개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거야.”



무신론자이던 아인슈타인은 아주 작은 아이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아이란 바로 여섯 살에 바이올린 연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예후디 메누헨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독실한 유대교인인 예후디의 아버지를 방문 중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에 관해 토론 중이었고, 아인슈타인은 그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던 어린 천재인 예후디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한 마디 던졌다. “교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어요.” 재미있게 생각한 아인슈



타인이 물었다. “너의 증명이 무엇인데?”

예후디는 그의 작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연주를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황홀하게 들었다. 아이는 연주를 끝내고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여섯 살난 아이가 음악당에 앉아 있는 수천 명의 청중을 즐겁게 하는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후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 어린 소녀가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자, 이제 가서 아빠 구두 좀 닦아라.”

소녀는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따랐다. 곧 아버지가 돌아왔으나, 아버지가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녀가 물었다.

“하나님의 구두는 누가 닦아드리죠?”

소녀의 아버지는 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신학자였다 하더라도 그의 신학적 지식이 딸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겠는가?

아버지는 약간 당황하여 말했다.

“어떤 착한 천사가 하나님의 구두 닦는 일을 영광으로 생

각할지 모르지.”

소녀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구두를 신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거룩한 땅에서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닦을 필요도 없죠.”

그날 저녁 기도회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대목을 읽었다.

소녀가 말했다.

“예수님도 팔레스틴의 먼지나는 길을 맨 발로 다니시거나 아니면 겨우 샌들을 신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난 후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자원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왜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다시 아버지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봉사만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해드릴 것이 없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의 딸은 나이에 비해 너무 현명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신학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즈음 신문을 보면 무시무시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중에는 어린이 유괴, 납치, 강간.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 주나요

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가진 많은 다른 부모들처럼 내 아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의 차에 절대로 타지 말 것과 아무리 좋아보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장난감이나 사탕이나 돈은 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한번은 아멜리를 시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이렇게 물었다. “만약 어떤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오백 달러를 준다면, 너 그 사람의 차에 타겠니?”

“아아뇨!”

“그 사람이 오천 달러를 주면?”

“아아뇨!”

“오만 달러를 주면?”

“글쎄요… 오만 달러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게 그 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빠에게 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보고 오겠어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누구나 작은 유혹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유혹이 아주 매력적이거나 엄청날 때엔? 서둘러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당신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 당신을 향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여쭙어 보도록 하라.



형편없는 다락방에 살며, 아픈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소녀가 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



를을 꿇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소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빵을 보관하고 계실까 생각하며 거리로 나갔다. 한 모퉁이를 도니 크고 번창한 빵집이 보였다. 소녀는 생각했다. “저기가 그곳인가 보다.” 그래서 소녀는 자신 있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걸 가지러 왔어요.”

“무엇 가지러?”

소녀는 유혹적인 빵 덩어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매일 먹는 빵요. 괜찮으시다면 두 덩어리를 가져가겠어요.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제 것으로요.”

주인은 빵 두 덩어리를 싸서 작은 손님에게 내밀었다. 소녀는 즉시 문쪽으로 걸어갔다.

“거기 섰거라, 꼬마야. 돈 어딴니?”

주인이 거칠게 물었다.

“하나도 없어요.”

소녀는 순진하게 말했다.

“돈이 없다고? 너 도둑년이구나! 그렇다면 뭇 땀에 여기 왔니?”

그의 거친 말에 소녀는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아프고, 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을 내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리로 왔어요.”

거칠기는 하나 마음씨 착한 빵집 주인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이야기에 감동되어서, 벌을 주기는커녕 친절하게 말했다.

“불쌍한 아이구나. 자, 이걸 너의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그리고 그는 큰 바구니에 빵을 가득 담아서 소녀에게 주었다.




 아프리카에 갔던 유명한 선교사 조지 모팜이 어떤 새 부족에게 갔다가 놀랍게도 나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독교 학교는 여기서 모인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그곳을 다녀간 어떤 기독교 선교사도 알지 못했다.

곧 그는 열두 살된 소녀를 찾아 그녀에게 학교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교장이자 유일한 교사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가까운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부족에게 최초의 선교사로 돌아왔다.

국내나 국외 선교를 위해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히 잘 뚫고 들어간다.



 끔찍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스리랑카의 네 살된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는 대목을 읽어

주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요 9:2).

어린 소년이 얼른 끼어들며 물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죄를 지어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왔다. 우리는 그러한 벌을 받을 만큼 중한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전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보여 주실 거예요.”

삼십 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살아서, 굉장한 고통을 겪으며 주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의 조용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선 우리가 참을성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 나라에 있는 더 좋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신다.



● 열두 살된 소년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우연히 자기 집에서 키우는 오리 한 마리에 맞아 오리가 죽었다. 자기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의 결과가 두려워, 소년은 죽은 오리를 묻고, 자기집엔 오리가 많이 있으니 한 마리쯤 없어진 것을 어머니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의 누이 동생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밤 오빠가 설거지 해. 안 그러면 내가 엄마에게 오빠가 한 짓을 이를 거야.”

그래서 그는 설거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의 누이가 다시 그를 위협하려 하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냐.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 난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어. 엄마는 날 용서해 주셨고.”

당신이 만일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죄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귀가 당신의 처음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도록 위협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당신의 죄를 알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최초의 죄인이 아닐테니까. 오히려 당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당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직접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단 한 발자국을 떼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당신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도록 몰아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경고

● 고대 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사들 중의 하나인 오리겐은 순교할 수 있는 특권까진 누리지 못했지만,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의 아버지 레오니드가(후에 순교했다) 체포되었을 때 오리겐은 어린아이였다. 그는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도 감옥에 가려고 있는 힘을 다 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그의 옷을 감춰서 억지로 그를 집에 붙잡아 놓았다.

어떻게 할 수 없자,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결심을 저희들 때문에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이 가족들에게 가져올 고난을 생각하고 압력과 핍박에 무너지는 크리스천들도 더러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희생이 가져다 주는 무거운 짐 때문에 가족들이 신앙을 포기할까 봐 그리스도를 위해 꾀꾀

하게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순교자의 자녀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입다물고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나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을텐데!”

오리젠과 같은 자녀를 가지면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된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어리던 나의 아들도 오리젠의 편지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내게 보내 주었다. 사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면회가 허락되어 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들의 첫마디는 “제게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였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있던 간수들은 그가 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버지가 누구일까 궁금하게 여겼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도 패념치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나는 여섯 살짜리 미하이와 미하이의 친구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녀석들이 앞서 뛰어가곤 했기 때문에 나는 종종 뒤로 쳐지곤 했다. 갑자기 미하이는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아저씨가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을텐데요”라고 말을 걸었다.

“왜?”

“성경엔 천국에 가는 방법이 쓰여 있거든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서 타 죽을 거예요. 저기 오는 저 키 큰 사람 보이세요? 저분이 제 아버지요. 아버지는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되었고, 현재 루마니아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시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같이 길을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되자.



● 다섯 살 때 미하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아버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아버지 손을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어린아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선한 행위가 곧 훌륭한 기도이다.



● 한번은 내가 어린아이에게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설명했다.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그는 작은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니까.

여덟 살이던 그 아이가 대답했다.

“모래알은 큰 거예요. 그것이 굴 껍질 속에 들어가면, 진주가 되거든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 손녀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내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그림 솜씨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그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금 죄를 짓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밋게 만들고 계세요.”

나는 피카소가 그녀의 말을 들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을 아주 밋게 그렸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딱지를 붙인 적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래알 하나가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죄인 한 사람이 아주 귀중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가 케이크 만드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녀석이 좋은 피를 생각해 냈다.

“엄마, 엄마가 나한테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몇 마디 가르쳐 드릴까요?”

“좋지. 그래, 엄마한테 무슨 말을 가르쳐 줄 셈이냐?”

“‘애야, 이것 하나 먹어봐라.’”

어머니는 아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즉시 따라 했다.



우리 몇 사람이 둘러 앉아서 심각한 선교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그 당시 여섯 살쯤 되었던 아멜리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우리의 말을 가로 막았다. “할아버지, 성경 어디에 ‘문제’란 말이 나와요?”

“내가 아는 대로는 그런 단어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 왜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나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나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처럼 문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나는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을 통해, 골치 아픈 일로 머리를 씩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배웠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믿는 우리는 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발도 팔도 두통을 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두통을 앓을 수 있는 것은 머리 뿐이다. 그러므로 두통을 앓는 신자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보좌에서 내려오시오. 이제부터 내가 머리오. 그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두통을 앓고 있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골치를 앓을 필요가 있는가?

루터는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당신 세상입니까? 제 교회가, 당신 교회입니까? 당신 세상이고, 당신 교회라면, 제발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여섯 살된 소년이 자기 누나가 몇 번씩, “오,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마침내 그가 누나에게 말했다.

“누난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란 말이야.”

성서에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교훈이 있다. 아이로가 꾸짖음을 당했다. “왜 선생님을 귀찮게 하느냐?” (막 5:35).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시 62:1).

리시우의 테레사가 자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수녀를 이렇게 꾸짖었다고 한다.

“당신의 자매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들도 다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수녀는 좋은 마음으로 그 꾸중을 받아들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문제를 예수님에게만 맡김 받으십시오.”

테레사가 대답했다.

“아니, 누구보다 그분에겐 안 돼요. 그분이 충분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분을 편히 좀 놓아주세요.”



한 부부가 언제나 자기들의 어린아이를 교회의 아기방에 맡기곤 했는데, 아기방은 늘 시끄러웠다. 드디어 그들은 처음으로 아이를 어른 예배에 데리고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교회에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소년이 고함을 질렀다.

“교회에선 말하면 안 돼요.”

나이가 좀 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말이 많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들이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찬 따뜻한 말들이라면 — 즉 ‘진짜’ 라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진짜’이다) — 아이들도 긴 예배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하 교회와 인도에서 아이들이 두서너 시간씩 계속되는 예배에 조용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 미국의 비극적인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기쁨에 넘친 군중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반항했던 남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소리쳤다.

“매달아 죽이시오.”

링컨의 아들 태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그들을 매달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매달리세요.”

“네 말이 맞다.”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행동한 결과,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저격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어른의 뜻을 따랐는지, 어른이 아이의 뜻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통일은 이루어졌고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



한 미국인 목사가 일본에 와서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귀국하자, 그의 어린 아들이 물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아버지는 일본말을 모르시는데.”

아버지가 설명했다.

“내가 몇 마디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내 말을 일본말로 통역했다.”

아이는 아버지의 설명을 한참 동안 생각해 보더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도 설교하실 때 이따금 말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설교를 설명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집트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약 50km 떨어진 아리아에서 최초의 독일인 선교사들이 가축을 키우며, 열두 살된 소년을 목동으로 두었다.


어느날 저녁 그들은 그 소년이 자기들이 번역해 준 신약성서를 친구들에게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그는 어렵게 어렵게 힘든 구절을 읽어 내려가며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쓰

고 있었다. 마침내 소년은 책을 덮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백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려 왔는데, 그들은 돌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머리를 쪼개고, 머리 속에 우리말을 넣어 주십시오.”

어린이들과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많은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어른들을 위한 설교 중 어떤 설교들은 너무 어려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학과 철학을 논할 수 있는 설교자들은 어린이학을 논하는 편이 낫겠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유식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든 정도가 너무 높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과 그러한 설교는 실질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기린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한번은 아멜리가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너희 아빠한테 가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두지 말라고 말해 줘. 할아버지는 장기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걸 싫어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잡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늘 장기에 지시는 거야.”

내 자신이 내 손녀가 생각하는 만큼 이타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 한번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호텔을 찾아갔더니, 지배인 말이 우리가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아무리 사정을 해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아멜리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들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과 싸우는거예요? 기도를 해야지요.”

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기도를 끝내고 고개를 들자마자, 지배인이 나를 불러 말했다.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방이 하나 났습니다.”

아멜리는 간단하게 말했다.

“한 가지 배우셨죠?”

그래, 내가 배웠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도 그 교훈을 기억할까? 그녀는 기억할까?



● 때로 내 아들 미하이가 피곤하여 아이들과 하는 기도를 짧게 하면, 아멜리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하곤 했다.

“아빠, 충분히 기도를 안 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표준에 맞추어 볼 때 충분히 기도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거룩한 아기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실까?



● 열세 살 먹은 아이들이 그림으로 십계명 중 하나를 나타내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몇 아이가 제 칠 계명을 택했다. “간음하지 말라.”

한 소년이 그린 그림엔 막대그림의 남자가 역시 막대그림의 여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남자의 머리 위엔 아무 말도 쓰이지 않고, 그냥 생각한다는 것만 나타내는 하트 모양의 풍선이 떠 있었고, 여자의 머리 위엔 역시 하트 모양의 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속엔 “내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써있었다.

유혹 때문에 영적 시야가 흐려질 때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로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 또는 누가 상처를 입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히로시마에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미국 조종사가 돌아오자 그를 에워싼 기자들이 물었다. “당신이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희생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아주 서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행동을 앞에 놓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를 입을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 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 미하이가 아마 다섯 살쯤 되었을 때 내 무릎 위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다.

“아빠가 오늘은 슬퍼 보여요. 왜 그러세요?”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아빠도 이 격언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주신 선물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에 대해 감사하세요.”

같은 나이에 아멜리는 나에게 이런 충고를 주었다.

“절대로 할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천당에 가실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여덟 살의 코넬리아가 나의 설교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설교하실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로 씻기움받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성인이세요.”

나는 내가 저지른 일로 나를 판단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기움받았다고 주장한 나의 설교를 믿고 있었다.

크리스천들은 왜 모두 다윗과 같이 “나는 거룩하다”(시 86:2)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인가? 정말로 우리는 성인들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고전 1:2).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 주었다. 그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하려고 양이 어떻게 밤에 울타리에 난 구멍을 몰래 빠져 나와, 멀



리 가게 되었는데 자세히 묘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들이 소감을 피력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에 난 구멍을 잘 고치셨겠죠.”

목회자들도 나쁜 길로 빠져나간 교인들을 다시 찾아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고(故) 폴톤 신 추기경이 그가 필라델피아의 시청을 못 찾아 헤맸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그곳에 사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길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서, 왜 그가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가를 물었다.

“나는 거기에 가서 ‘천당으로 가는 길’이란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한 소년이 소리내어 웃었다.

“아니, 시청으로 가는 길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천당으로 가는 길을 알겠어요?”


어린이들도,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해와 행동이 같은 정도로 계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윗과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현재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은 의의 길에서 멀

리 떨어져 나간 적이 있으면서도, 낙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람과 그의 이야기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길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도록 하자.



 여러 가지 다른 종파에 속하는 십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우리집에 모인 적이 있었다. 우리는 성서적 문제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모두들 논쟁이 뜨겁에 달아오르면, 논쟁을 그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룩한 규칙도 잊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 당시 네 살 가량 되던 미하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논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그는 조용히 네 마디의 그리스어를 말했다.

“카디아 카이 사이키 미아”(Kardia kai psyche mia).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방언을 하는 줄 알고 나에게 그 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내가 번역해 주었다.

“한 마음 한 영혼.”

그들은 놀라서 말문을 닫았다. 논쟁이 그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아마 미하이가 내가 신약성서를 그리스 원문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온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는 아마 그 구절의 아름다움과

그 단어들의 운(韻)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 kardia ...  
mia — 아내에게 보여 주며 설명했을 것이다.

미하이는 분명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이다.



## 설명

● 아멜리가 여덟 살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 졸랐다. 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매우 슬퍼했다.

“예수님은 내 발을 씻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라고 그녀는 슬퍼했다.

나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너는 세례를 받았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보았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선 자기가 우리의 발을 씻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론 안 돼요.”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었으나, 드디어 그녀를 완전히 안심시켜 준 것은 다음 구절이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준다.” 머리와 손과 발, 즉 ‘모든 것’의 죄를 씻어 준다고 내가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예수님에 의해 씻기움을 받으면 천국

에 가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전적으로 확신하지.”

“정말이세요?”

“물론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준 제자들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나는 몇 사람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말을 막았다.

“그분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나요?”

“씻었지.”

“그러면 가롯 유다도 천당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확실하네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안 그래요?”

“그는 은돈 삼십에 자기 선생님을 팔았으니까.”

아멜리는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말로 우리의 토론을 끝냈다.

“할아버지, 예수님에게 씻김은 받는 것으로 불충분해요. 후에 행동도 바로 해야 해요.”

그 간단한 말로, 그녀는 야고보서 전체를 요약했다.



여덟 살 먹은 천주교 신자인 아이가 ‘거룩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 머리 둘레에 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원 밑에 바로 있으려고 조심해 걷는다. 그러



면 그 원에서 빛이 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엔 그 원에 빛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어른도 그보다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니나와 그녀의 남동생은 지나가는 구급차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에 정신이 팔렸다.

눈을 크게 뜨고 아장거리는 동생을 교육하려고 니나가 설명을 시작했다.

“차들이 멈춰서서 자기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야.”

그녀의 동생은 생각이 달랐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건, ‘여기 당신들의 기도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야.”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내 생각엔 둘 다 옳은 것 같다.



● 내가 미하이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라”라는 말씀을 읽어준 적이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어떻게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슴을 두드려 보고, ‘가슴아, 너는 사랑하니? 가슴아, 너는 사랑하니?’ 라고 물어야 한다.” 나

는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내 가슴을 세계 치며 말했다.

미하이가 반대했다.

“난 기차 정거장에서 어떤 사람이 손에 망치를 들고 바퀴들을 차례로 두드려 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도 한번 해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망치를 건네 주었을 때, 난 그 망치가 굉장히 가벼운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정거장마다에서 무거운 망치로 바퀴를 두드리면 바퀴들이 금방 부서질 거라고 말했어요”(물론 미하이가 본 것은 금속을 두드렸을 때의 진동 소리를 들어서 바퀴들의 손상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슴을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슴이 부서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슴에게, ‘너는 사랑하니?’ 라고 가만히 물어보고, 가슴이 ‘예’ 라고 속삭이면 만족해야 해요.”

나는 그날 아주 귀중한 것을 배웠다. 자신을 살피는 것은 좋지만, 자신을 고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들을 결합시켜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하곤 한다. 아프리카에 관한 그림책을 보고 나서 한 다섯 살짜리 어린이가 결론을 내렸다.

“사하라에는 얼음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졌음에 틀림없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모래를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이 세상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 내려 한 이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랍비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너, 뭐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과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랍비가 웃었다.

“어떻게 하는건데?”

소년이 대답했다.

“제가 하나님께 공을 던져 올리면, 하나님이 제게 공을 던져 내려요.”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일들을 이렇게 순진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하신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심리적,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맹목적인 법칙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중에서 얼마를 예수님께 드릴 작정이냐고 물었다. 막내가 대답했다. “한 푼도 안 드릴 거예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물었다. “넌 예수님께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니?”

“난 그분에게 아무것도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내가 현금 바구니에 한 푼도 안 넣어도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꼬마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아이의 말은 상당히 맞는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리고 나면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서 물질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으시다. 수많은 언덕 위의 소떼가 다 그분의 것이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권과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때때로 어린이들은 신선한 정직성을 나타낸다. 한번은 구세군의 부스 부인이 설교를 하는데, 맨 앞줄에 있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설교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어린이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부인. 눈에 별레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영력을 가지고 있는 체하지 말아야 한다.



● 브램웰 부스는 구세군의 대장이었다. 그의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기뻐하시게 구세군에 많은 돈을 보내 주세요.”

알렉스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빠는 교회에 몽땅 돈을 다 바치기 위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해요.”

악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신학적 오류를 범한다. 어떤 목사님이 죄와 지옥에 대해 무서운 설교를 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가릴 것 없이 우리 교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날엔가는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던 소년 하나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교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반복했다.

소년은 계속 웃었다.

화가 난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다. “너는 왜 웃고 있느냐?”

“전 이 교구에 살지 않거든요.” 소년이 대답했다.



아멜리는 다섯 살 때 왜 루마니아 수도의 이름이 부카레스트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렸다.

“그건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여서, 누구든 종교적인 책(book)을 가지고 있으면 체포(arrest)하기 때문이에요”(루마니아의 수도 Bucharest는 book-arrest와 발음이 비슷함 — 옮김이).



나는 루마니아의 시골에 있는 작은 읍의 장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찾은 적이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중 약 열두어 살된 소년이 자기가 나를 목사관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자원했다.

나는 소년과 같이 걸어가면서 소년에게 이것 저것 물어본 결과, 소년이 그 다음 주에 견진성사(堅振聖事)를 받을 예정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소년에게 물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소년은 확고하게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견진성사만 받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받으라고 해서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



그의 대답은 놀라웠다. “하나님께서 내가 배운 것과 같은 굉장히 놀라운 그리스도를 이천 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세대에, 모든 마을에 작은 그리스도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난하면서, 우리집엔 아이들만 많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사탕 하나 준 적이 없고, 친절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같은 건 없어요.”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너의 목사님이 작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뇨.”

우리는 목사관에 도착했고, 소년은 돌아갔다. 나는 소년이 작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년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했다.

“바보같으니라구!” 목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말이 옳았다. 그러나 누가 바보였는가?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멜리가 다섯 살 때 내게 간청했다. “할아버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아주아주 자세하게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 말할 순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만을 기록한다고 써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아주 조금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 자꾸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고, 더 조사하고 알아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란 점을 명심하자.



● 나는 미하이가 어렸을 때 잘못된 일이 있어 그를 나무라야 했던 일을 기억한다. 잘못된 일이 확인되자, 그는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넌 왜 내 얼굴을 바라보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가 엄한 말을 할 때 아버지의 입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난 그 말들이 나오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보고 싶어요.”



● 어떤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오페라를 보러 갔다. 그는 가장 무도회를 보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난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오페라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오페라는 전부 이태리 어로 노래

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나는 이태리어를 모른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아들이 너의 반에 있으니, 그 애의 집에 가거든 그 애의 아버지에게 물어 보아라. 그분은 틀림없이 기꺼이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지만 지휘자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악기와 성악가가 자기 차례에 정확하게 연주하고 노래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나는 사실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에게 말해 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라. 그 오페라의 주역을 맡은 테너 가수가 차를 마시러 우리집에 올 시간이 다 되었다.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게다.”

그래서 소년은 테너 가수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닌데다, 여러 다른 배역을 외워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잠깐씩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여기 이분이 무대 감독이시다. 그분이 너에게 말해 주실거다.”

무대 감독도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나는 아주 일반적인 것밖엔 모른다. 나의 관심사는 배경과 무대 장치이지,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소년은 오페라의 가사를 쓴 사람에게 갔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가사만 썼다. 나도 가끔 내가 쓴 가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 이상한 음악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다.”

소년은 작곡가에게 갔으나 그의 대답도 신통치 않았다. “가장 무도회? 그걸 누가 아니? 내 입장에서 본다면, 작가가

보스턴 시장을 스페인의 기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내게 있어 그 오페라의 이야기라는 건 나의 음악적 환상을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소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이해하지도 못하는 연극의 어떤 작은 부분을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전 8:2).

사랑만이 지식과 의미를 여는 열쇠이다.



아멜리는 열한 살 때 학교에서 사형 제도에 관한 글을 써야 했다. 그녀는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그때 여섯 살이던 알렉스가 잠시 듣고 있더니, 묻지도 않는 데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했다.

“난 사형 제도에 찬성해 — 단 사랑을 가지고.”

크로쓰의 성 요한은 이렇게 썼다.

“마지막날에 우리 모두는 사랑에 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때로 삶은 우리에게 엄한 방법을 쓰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





많은 박해를 받았던 러시아의 정교회 사제인 웨르드코브는 그의 책 속에서 열두 살 먹은 어떤 소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어린 미샤는 크리스천이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인 교사들이 그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들은 미샤를 설득하여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미샤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넌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난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인 가가린이 ‘내가 우주를 둘러 보았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는데,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몰랐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따금 우리의 질문에 대해 직접 대답해 주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난 후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분, 우리 경험 속에서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우리의 감각 기관이 이 세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인



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보다 나은 도시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곳을 짓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 작가인 엘리 위젤은 한때 나치 강제 수용소의 죄수였다.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교수형을 당한 굶주렸던 한 유대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년은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울지도 않고 반항도 하지 않았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에게 주어졌던 삶이, 역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에게서 탈취되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말없이 가슴 아파하며, 바로 거기 교수대 위에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런 엄숙한 시간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역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 입을 열지 않았다” (사 53:7).



● 나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홉 살 난 소녀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소녀가 말했다.

“미워하는 것이 죄라면 사랑하는 것도 죄지요.”

“넌 어째서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예수님처럼 누구도 사랑하진 않아요. 전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소녀와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는 예배하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는 피가 바쳐지곤 했다. 그러나 일 년에 한 번씩은 제단 자체도 깨끗함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한 행동조차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이 완전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만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 어느날 저녁 유명한 전도자의 아들이 말썽을 부렸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왜 그렇게 버릇없는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대답했다.

아, 우리도 우리가 슬퍼하는 행동의 탓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마귀는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태도와 행동을 취하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대상에게 비난을 돌리고, 조용히 우리 생활에서 잘못된 일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망치려

는 마귀의 역사를 질타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소년이 펜과 잉크로 개를 그려보려는 용감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었다. 개의 꼬리가 없다는 것 외엔 결과가 괜찮았다.

자연히 그 그림을 본 어른이 물었다.

“꼬리는 어디 있니?”

소년이 엉큼한 대답을 했다.

“꼬린 아직 잉크병 속에 있어요.”

때로 우리는 세련된 성인들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몇 년 전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었다. “절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절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미덕은 그분의 약속과 더불어 아직 ‘병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다.”

“그럼 엄만 어떻게 태어났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엄마, 그럼 우리집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섹스가 없었어  
요?”

텔레비전과 플레이보이 잡지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어린이  
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섹스를 의식하게 된다. 아이들  
은 우화 같은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단,  
섹스의 양면에 대해 — 아름다움과 위험에 대해 — 다 이야  
기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을 정해 주셨는지를 알아  
야 한다.



어떤 아이가 흥분해서 주일학교에서 돌아왔다.

“우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흔드니까 하늘  
에서 건축 재료가 떨어졌어요. 다시 흔드니까 그 재료들이 서  
로 붙어서 커다란 다리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흔드니까 말  
과 마차가 생겨서 노인들을 싣고 갔어요.”

아이는 신나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네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구  
나.”

“하지만 엄마, 내가 정말로 선생님이 말한 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요즘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뜻을 팔면서 회의적인 태도도 같이 빠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 해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후기

● 나는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나는 다시 옛날의 감방에 가 있었다. 그리고 내 침대 위에는 커다란 애벌레가 한 마리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버리고 싶었지만 문이 잠겨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죽이려고 무진 애를 써야 했다. 나는 그걸 죽이느라 너무 애를 써서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죽인 것이 내 속에 있던 어린아이 — 온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는 능력, 무제한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랑, 맹목적인 신뢰 — 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죽였던 것이다.

잠이 깬을 때 나는 몹시 슬펐다. 사람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날 인공적인 유산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십 년간 미국에서만도 약 일천 오백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법적으로 자

녀를 한 명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부모들이 딸보다는 아들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갖 태어난 딸 아이들이 수천 명씩 살해되곤 한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살인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아이, 니체의 말을 빌리면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죽인다. 종교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종교의 적인 막스조차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기독교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어린이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의 공헌을 했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자기들 속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 부분이 어린이들의 신학의 독보적인 영역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을 “거룩한 아기, 예수”(the holy child, Jesus, 행 4:27)라고 불렀다. 왜 그랬을까?

안 촌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적어도 이백만 명은 죽인 — 그녀의 가족을 포함해서 — 대학살 기간 중에 자라난 캄보디아의 소녀인데, 그녀가 우리에게 매우 재미있는 대답을 주고 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화를 덜 내고, 모욕을 더 빨리 잊어 버립니다.

어쩌면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더 쉽게 웃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어린이들같이 되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동류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덜 가지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어른들이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죠 — 심지어 종교 전쟁까지도.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노라”(계 2:4)는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 첫사랑은 어린아이의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어린이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의 순수성을 어른들이 만들어 낸 신화라고 믿는다. 프로이드는 어린이들을 “다형태의, 성격이 비꼬인 존재”(polymorph perverse)라고까지 말했다.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다윗이 오랜 옛날에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모태에서부터 잘못된 자들, 나면서부터 빗나가서 거짓말만 하는 자들, 저희의 독은 뱀의 독같도다”(시 58:3-4).

이것은 몇 명의 악한 자녀들을 가졌던 아버지의 쓰라린 고백이다. 어쩌면 프로이드도 같은 좌절감을 맛본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 속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와 열린 마음을 칭찬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위로 기어오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따뜻함과 사



량으로 그분을 껴안고, 그분에게 입맞추었을 것이다. 아무런 신학적 지식이 없이도 이들은 하나님을 껴안았는데, 신학자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다.

복음의 핵심은 — 모든 성서가 이 좋은 소식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 하나님께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반겨 맞아 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선 하나님의 이 진정한 성품을 보여 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요 3:16 참조).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단순한 믿음으로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기를!



책 번호/522번

---

## 하나님 구두는 누가 닦아 주나요

---

지은이/리차드 범브란트

옮긴이/전덕애

발행인/장하구

발행처/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1

우편 번호/110-111

대표 전화/732-5381, 732-2331

FAX/732-6202

---

출판등록/1954년 1월 7일 제1-360호

초판 인쇄일/1997년 4월 20일

초판1쇄일/1997년 4월 20일

---

ISBN 89-305-0522-8-03800

책값 6,000원

---

옮긴이와의 계약에 따라 검인을 폐지함.